

8월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2680.35 (+32.73)	873.18 (+9.81)
↓ 금리 (연-0.05%)	↓ 환율 (원-달러)
3.271	1319.80 (-11.10)

“정부 일방적 정책 의료체계 혼란”
의대교수들 시국선언 02



DX 중심 클라우드 보편화... 보안 인식은 세계 최하위

(디지털 전환)

초대형 빅테크기업 MS, 해킹 피해 카스퍼스키, 대기업 해킹사태 보고 팬데믹 후 DX 따른 데이터 양 증가 韓클라우드 구축, 글로벌 30% 상회 보안 중요성에도 인식은 매우 낮아

클라우드 기술이 기업과 개인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IT 보안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양의 증가로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은 보안 인식 수준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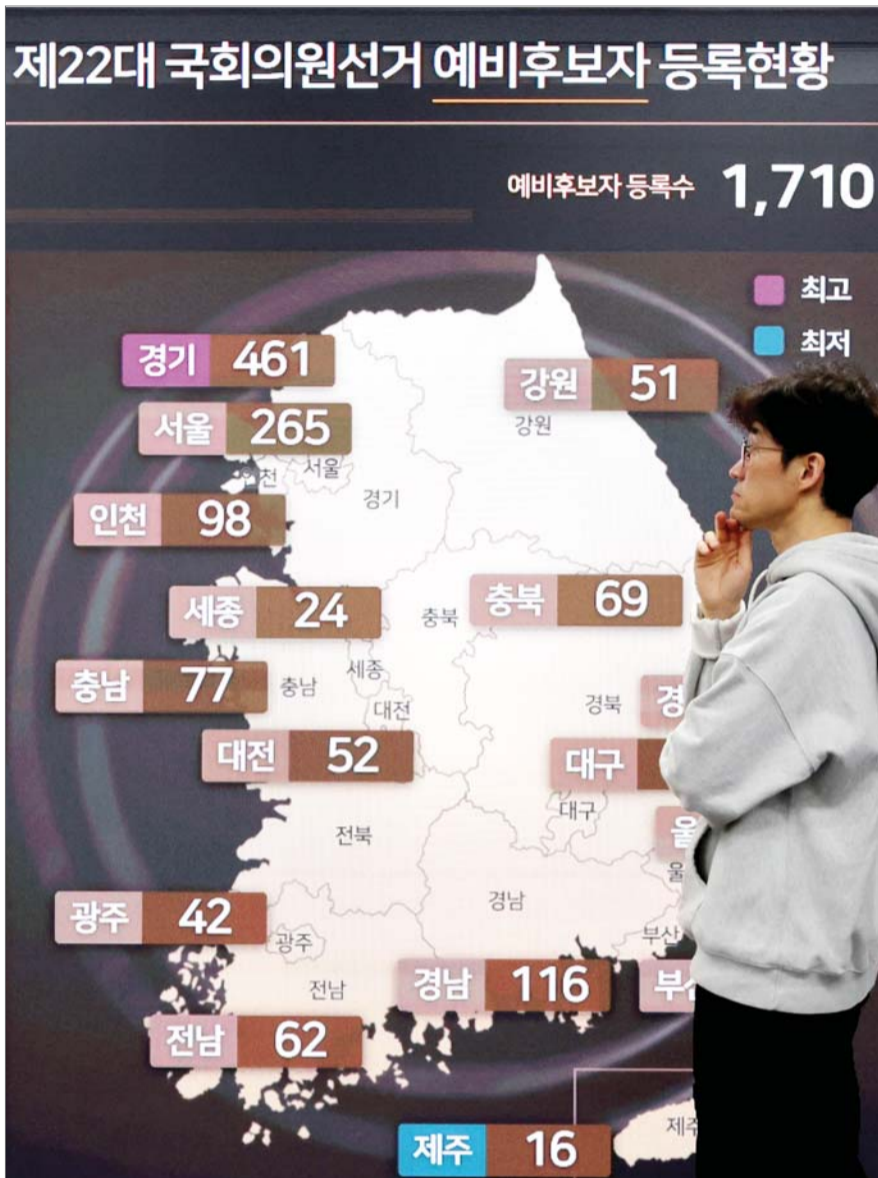
10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대형 빅테크 기업 또한 뒤늦게 해킹 사실을 발견하는 등 보안 위협을 겪고 있다. 클라우드는 온라인 상에서 서버, 저장공간, 데이터베이스 등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필요에 따른 자원의 유연한 확장과 접근이 가능하며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아 최근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8월 2023년 11월 해킹 조직 미드나잇 블리자드(Midnight Blizzard-Cozybear)가 단단계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계정들에 침투한 후 계속해 해킹을 시도하고 성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침투 사실은 1월에 처음 확인됐으며 보안 시스템 강화 후인 2월에도 이메일 계정 침투와 내부 시스템 액세스가 확인됐다. 거대 빅테크 기업의 해킹 사실이 발표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 사이 주가가 1% 이상 하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탈취된 정보와 침해 규모에 대한 언급은 침묵했다.

글로벌 보안기업 카스퍼스키 랩(Kaspersky Lab)은 같은 날 합법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QEMU를 활용해 악명의 대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해킹 사례를 보고했다. 이미 해킹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다른 터널링 소프트웨어와 달리 QEMU를 이용한 사례는 첫 보고다.

QEMU는 여러 하드웨어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 개발·관리를 용이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기업들에 큰 인기를 끄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에뮬레이터다. 카스퍼스키는 “QEMU에 특정 옵션을 설정해 폐쇄적인 기업 네트워크 호스트를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 호스트로 네트워크 터널을 설정할 수 있었고 해당 호스트가 클라우드에서 실행 중인 해킹 조직의 서버에 곧장 연결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카스퍼스키 측은 기업이 악명을 요구함에 따라 구체적인 탈취 정보에 대해 함구했다.

최근 나타나는 보안 위협은 전자 기기의 발전과 이에 따른 클라우드 활성화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대두된 디지털 전환이 클라우드 구축을 가속화하고, 클라우드 접속에 고성능화 한 개인의 전자기기가 활발히 이용되며 더 늘고 있다. VM웨어에 따르면 한국의 클라우드 환경 구축 속도는 전세계 조직 평균을 30% 상회한다. 반면 한국의 디지털 보안 인식 수준은 많은 설문조사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확인된다.



제22대 총선 한달 앞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노드VPN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별 개인 정보 보안 인식 테스트 결과에서 한국인의 온라인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은 175개국 중 최하위권이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들의 아낌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정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AI(인공지능)앵커를 활용한 동영상, yap TV와 제휴를 통한 서울 시내버스 내 뉴스 제공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2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미디어 역사를 새로 쓸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1. 신입 취재기자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 (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 ④ 우대사항
 -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2면에 계속)



반감기 한 달 앞둔 비트코인... “앞으로 더 간다”

과거 반감기와 다른 상승 패턴 보여 현물 ETF 수요처 확보·반감기 기대

반감기(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를 한 달 앞두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 7만 달러를 돌파해 향후 전망에 관심이 집중된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급등했다. 최고가 경신 후 곧바로 6만8000달러까지 하락하긴 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8일(현지시간) 7만199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처음 7만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월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29개월 만에 경신했지만 3일 만에 다시 최고가를 찍었다.

7만 달러를 돌파한 후 비트코인 가격은 차익매물이 쏟아지며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 한때 6만6000달러선이 위협받기도 했지만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만8000달러까지 회복했다.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 5일에도 14% 급락하며 6만달러까

지 추락 후 다시 상승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과거 반감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감기는 4년마다 오는 것으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 비트코인 생산이 적어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2012년, 2016년, 2020년)에서는 반감기 전후엔 비트코인 가격이 큰 움직임이 없었다. 오히려 반감기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

반면 이번에는 반감기를 앞둔 시점부터 상승세가 펼쳐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터치한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기존 '반감기 효과'는 반감기가 지난 이후 비트코인 신규 발행량이 줄어 들면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선반영 효과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라는 대규모 수요처가 확보된 영향이 크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뉴스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당 '경선 기간 중 금지 행위' 투표권 유한 안호영·신정훈 의원에 '경고'
▲ 이재명, SNS에 “나라 망친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장악한다” /사진 뉴스시스

▲ 민주당 노웅래 의원, 당 결정 승복하고 불출마 선언
▲ 여야 총선 표 경쟁으로 장밋빛 공약 쏟아져... '포폴리즘' 지적도



▲ 이준석 대표, '채상병 사건' 이종섭 장관 출국금지 해제 비판 /사진 뉴스시스
▲ 의료 공백 속 군병원 찾은 민간인 189명 달해

8개 의대 교수·전문의 시국선언... '집단사직' 현실화 우려

>> 1면 '메트로경제와 함께'서 계속

■ 제출서류

-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카페(아랑), 구인 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 2024년 2월 29일(목) ~ 2024년 3월 29일(금)
-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3월 29일 도착분) 채용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접수 가능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년 4월 3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워크숍룸
- ③ 내용 : 공지하는 취재 주제로 기사 작성하여 제출

·면접(실무 면접, 임원 면접)

- ① 일시 : 2024년 4월 11일(목)~12일(금)
- ②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③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년 4월 17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로 연락바랍니다. ☎ 02-721-9851

“정부 일방적 정책, 의료체계 혼란”
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 사이트 개설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는 안했지만
상실감·피로 누적에 사직 우려 커
울산의대 전 교원 사직서 제출 결정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정부와 의사들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도 본격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국내 주요 대형병원 교수와 전문의들은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을 내고 연대 서명에 나선 상태다. ‘집단사직’과 같은 단체 행동을 결의하진 않았지만,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상실감과 회의감이 커지면서 자발적 사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수들 정부에 책임 물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면서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동료 의사들에게 연대 서명을 요청했다.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소속 의료진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인근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우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필수의료의 붕괴와 지방의료의 위기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를 자랑해오면서, ‘값싼 의료’의 뒤에 숨겨진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은 간과했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증, 응급, 그리고 지역 의료 붕괴이다. 일방적인 ‘필수의료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외면 받고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도 이를 반복하며 의료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의료 몰락을 구제할 대책을 제시하여 전공의들과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비판적 의견 또한 수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의대 교수 비대위 체제를 처음 꾸린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1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 9일 긴급총회를 열고 의대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책임감으로 버티긴 역부족”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에 나서면
결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우려했던 ‘집단사직 결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수협의회 기본 원칙은 교수는 환자를 봐

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직을 고려하는 교수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현장에서 누적되는 피로와 현재 상황에 대한 상실감이 가장 큰 이유다.

국내 빅5병원에 재직중인 한 교수는 “많은 교수들이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다”며 “하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 보면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은 할 수 있지만 수술 이후 회복 과정을 지켜줄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하니 많은 수술이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의점도 해당도 보이지 않으니 교수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아픈 환자를 제대로 고칠 수 없고 제자들도 잃어버린 현실에 매일 너무 많은 회의와 상실감을 느낀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장기화되는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의 전공의 징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이탈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도 적지 않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3개 수련병원 교수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총회를 열고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직서 접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비트코인, 연말 15만 달러 도달 가능성”

>> 1면 '반감기 한 달 앞둔'서 계속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직후부터 지난달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하루 평균 2억6000만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지난달 말부터는 하루 평균 5억

5000만달러가 유입되고 있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리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는 “비

트코인이 단기적으로 8만2000달러에 도달하고 올해 말까지 15만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에 따른 수요 개선과 반감기에 의한 공급 축소, 우리가 예상하는 통화정책 완화가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비트코인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 해석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과거에 이처럼 확실한 수요저를 확보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은 경우는 없었다”며 “아직 현물 ETF를 추천 리스트에 올리진 않은 투자자문회사도 많고, 현물 ETF를 편입하는 ‘액티브 운용 ETF’도 출시될 것으로 보여 현물 ETF의 자금 유입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활약을

기대海

해운·항만 인프라 투자로 대한민국 해양영토를 더 크고 더 넓게!!
新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활약을 기대海

01 총 자산
20조원

02 선박금융
공급 1위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등급

한국해양진흥공사 2030 미래상

소소·KCD·유뱅크 등 도전장... '자본력·혁신서비스' 관건

제4인터넷은행 경쟁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 필수적
소소뱅크, DGB금융그룹 사업 검토
유뱅크컨소, 현대해상 운영 참여

소소뱅크, KCD뱅크, 유뱅크 등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물밑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신규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충분한 자본력과 혁신서비스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세밀한 인가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제4 인터넷은행 진출을 노리는 곳은 금융그룹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자체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소뱅크, KCD뱅크, 유뱅크 등 3곳이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유뱅크컨소사업은 현대해상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컨소사업에는 핀테크기업 '렌딧', 세금 환급 플랫폼 삼점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외환 송금과 결제 스타트업 '트래블월렛',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루닛'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핀테크 업체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고 KCD뱅크를 출범했다.



유뱅크 컨소사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유뱅크 컨소사업

같은 해 12월에 소상공인·소기업 단체 35곳이 모여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공고를 내고 신청을 접수했다면 앞으로는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도전자가 나오면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인가여부, 자본력 확보

이들의 인가여부는 자본력 확보가 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최소 250억원의 자본금과 대주주의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사례를 보면 출범 시점에만 약 3000억원이 필요했다. 또 인가 이후에도 일단 증자를 통해 2조원 가까이 확보했다.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수 년이 걸려 초기 투자자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제3인터넷은행에서 탈락한 이유로 자본능력을 꼽았다. 제3인터넷은행 설립에 카카오뱅크는 KB국민은행,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토스뱅크는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이 기여한 것으로 봤을 때 은행권과 금융그룹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에는 DGB금융그룹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19년 인가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한 소소뱅크는 소상공인들의 출자와 금융투자자컨설팅을 통해 1조원가량의 자본금을 마련한 상태다. 이들은 소상공인, 스타트업에 대한 신용평가 데이터가 부족한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터넷은행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유뱅크 컨소사업에는 P2P금융사인 렌딧과 루닛, 자비스앤빌런즈, 트래블월렛 외에도 현대해상이 참여한다. 현대해상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익을 낼 계획이다. 유뱅크는 참여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시니어 소상공인, 외국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을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권 금융그룹 마중물 역할 '글쎄'

다만 일각에선 은행권 금융그룹이 단순 투자만 하는 재무적 투자자로(FI)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과 금융그룹의 디지털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인터넷은행의 기술력과 격차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행권 혹은 금융그룹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수익성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자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인가구 1000만 넘어선다

지난달 말 기준 1인가구 998만개
서울지역 이달 200만개 확정적

국내 1인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지역 1인가구 수는 이달 내 200만 진입이 확정적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세대) 수는 지난달 말 기준 998만 개로, 전월(994만 명)에 비해 3만8000개 증가했다. 사상 최다를 경신 중이고, 오는 3월 말 집계는 10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3월에 못 미치더라도 4월 집계에선 진입 가능성이 매우 짙다.

올해 2월 1인가구는 10년 전인 2014년 2월(690만 개) 대비 308만 개(+44.6%)

늘었다. 1년 전(2023년 2월, 977만 개)에 비해서도 20만3000개 증가했다.

서울지역 내 1인가구 수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작년 2월 196만 개에서 올해 2월 199만 개로 1년간 3만 개 늘었다. 10년 전(151만 개)보다는 무려 48만 개 증가했다. 세부 수치로, 수도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은 지난달 기준 200만 명에 단 1명 모자란 199만 99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홀로 거주하는 사람 수는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 서울에만 5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비혼 청년층 및 고령층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라며,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직장인 절반 "1년간 보안인증 미확인"

>> 1면 'DX중심 클라우드'서 계속

조사 항목 각각은 ▲국가별 개인정보 보안인식점수(46) ▲일상의 디지털 보안습관 점수(36) ▲개인정보 보안 인식 점수(49) ▲국가별 디지털 위험지수(50)으로 이를 합산한 점수는 전세계 평균 61점에 못 미치는 46점으로 나타났다. 보안의 중요성과 방법을 잘 이해한 응답자의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오픈서베이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보안 인식 조사 결과에서조차 다양한 보안 인증 체계에 대한 중요성 이해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응답한 비율은 55.5%에 이르렀고, 인증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없다"는 13.1%, "보통"은 46.2%에 달했다. 보안 사고 후태도 또한 "불쾌했지만 계속 사용함"이 51.1%였다.

/김서현 기자 seoh@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증을 만드는 꿈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DB 모두의 마음 속엔 꿈이 있습니다

보험 	금융 	반도체·IT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vs “현장서 공감, 해결책 찾을 것”

〈국민의힘 오신환〉

〈민주당 고민정〉

22대 총선 격전지 광진을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접전
민주 고민정 44%, 국힘 오신환 37%
오신환 “제자리 걸음 벗어나야”
고민정 “정치, 현장·공감이 답”



서울 광진구는 4·10 총선에서 '한강벨트' 지역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사진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사진 왼쪽)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모습. /각 후보 페이스북 캡처



서울 광진구는 4·10 총선에서 '한강벨트' 지역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지역구가 신설된 15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7차례의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특히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광진을에서 20년에 걸쳐 5선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여성 최초 지역구 5선'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의 표심을 살펴보면 총선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진구에서 56.69%를 얻었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48.82%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1.63%포인트 차로 이겼다.

대선이 끝난 후 3개월여 만에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8.31%를 얻어 큰 차이로 송영길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눌렀다. 광진구청장의 경우엔 김경호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51.21%를 얻어 12년 만에 보수정당 소속 광진구청장이 탄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광진구의 표밭이 보수화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2년 지선은 대통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시기였다.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는 현재, 광진구의 표심은 선불리 가늠

하기 어려워졌다.

◆민주 고민정 44%vs국힘 오신환 37%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진을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초접전이 예상된다.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대선·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긴 곳인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8~9일 광진을 거주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 따르면 고

민정 민주당 의원은 44%,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37%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7%포인트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오신환 vs '내일이 기대되는 광진' 고민정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광진을에 도전자로 나선 이는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다.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2.55%포인트 차로 패한 바 있다.

오신환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퇴 이후 22대 총선에서 기존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이 아닌 광진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선거 약 1년 전부터 지역구 다지기에 매진했다. 이에 오 후보는 지난달 14일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았다.

광진을은 인근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2호선 지상철 지하화' 등 지역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인지 오 후보 역시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오 후보는 지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성동·중랑·강동이 전부 변하는 동안 광진은 왜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 하는냐"면서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오신

환이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광진을 지역의 현역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5일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았다. 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승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랜 기간 있었지만, 중랑감 있는 상대 후보와 맞붙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구로 꼽혔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고 의원은 당 지도부를 역임하는 등,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보다 무게감이 더해졌다. 최근 발목을 잡질리며 휠체어·목발 등의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두 발로 골목을 돌며 지역민을 한 명씩 만나고 있다고 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고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지역구인 자양사거리 앞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진'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현장과 공감이 있다. 현장에서 국민과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은 정치의 해결책"이라며 "가슴으로 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광진 구석구석에서 주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사심’ 챙긴 회장 정치권行... 소상공인聯, 정치판으로 전략

롯데 회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청 일부 단체 임기 중 ‘정치행위’ 비판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치판으로 전략했다. 소공연 정관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무색케 하며 정치화되는 등 조짐이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임기를 5개월 가량 남겨두고 지난 6일 돌연 사퇴했다.

오 회장은 사퇴 당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같은 날 오전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 사무실에서 대한속박업중앙회, 한국펄스산업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과

함께 인연을 모아놓고 버젓이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갑작스럽다. (사퇴 및 비례대표 신청은) 회장이 혼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 회장의 사퇴로 소공연은 오는 12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빈 회장 자리는 한국주유소협회장

을 하고 있는 유기준 현 소공연 수석부회장이 당분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회장의 정치권 행보는 2021년 8월 제4대 소공연 회장으로 취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그의 소공연 회장 도전이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게 소상공인업계 내부의 관측이었다.

전라북도 부안 출신인 오 전 회장은 89년 당시 설립한 뷰티전문학원 수빈아

카데미를 통해 미용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국메이크업협회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도 발을 들였다.

그러나 전임 3대 회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소공연이 한창 집안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경선을 통해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의 회장직까지 올랐다.

오 전 회장이 한창 회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22년 초반 한 소상공인 단체는 당시 오 회장이 “특정 정당을 옹호하며 정치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하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길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빛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연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맛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심

한강변의 자연
정겨운 휴식처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idarksky, korea, korea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해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죽백수림, 외새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속박물관, 민달뿔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양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다!다!우
기다!♡

하나뿐인 내 편,
임영웅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웅은 하나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2찍, 5·18 북한개입 발언 논란

與野, 총선 앞두고 '말실수 주의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순회 중
“2찍 아니겠지” 발언에 “사과드려”

도태우, 5년 전 5·18 운동 부정
“정제되지 못한 발언으로 심려끼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동 일대에서 양 손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시스

4·10 총선을 한달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후보들 사이에서 무심코 나올 수 있는 말실수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백중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말 한마디가 여론을 긍정적이게 하거나 들끓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9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났는데, 한 고깃집에서 만난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설마 2찍, 2찍 아니겠지”라고 말했다.

2찍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을 비하하면서 쓰는 말로, 곧바로 상대 정당의 비판 논평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 갈라치기로 국민을 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새로운미래는 “상대 정당 지지자, 유권자에 일말의 존중도 없는 정치인의 이런 태도야말로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도 이를 인식한 듯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며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치인의 말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유권자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를 앞에 두고 정당들은 후

보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후보들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은 도태우 후보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한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다”며 “특히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발언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도 후보는 해당 방송에서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북한 개입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야 한다”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발언이 논란이 되자 도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도 후보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 정제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19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지 못한 개인적 발언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을 계승한 흐름의 5·18민주화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결코 부정할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해명했다.

과거 대형 선거에서 말실수로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4년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국회 처리 역풍으로 민주 정당 계열의 승리가 예상되던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집에서 쉬셔도 되고”라고 말해 투표 성향이 높은 노인층의 큰 반발을 일으켰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전두환씨가 정치 하나는 잘했다”고 말해 5·18 민주화 운동 유족 단체와 진보 정당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적도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생토론, 선거와 관계없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

尹, 불법선거운동 논란에도
민생 챙기며 국정동력 확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져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소개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관련 선거’, ‘불법선거운동’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소야대의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은 야당의 반대에 힘들었고, 자연히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올해부터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으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정 동력도 확보되는 모양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먼저, 야당의 ‘불법선거운동’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전에도 자립준비청년이라든가, 시장 상인이라든가, MZ 청년 경찰관이라든가 다양한 직군과 시민들의 그룹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에서 소통을 해 온 바가 있다”며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최고위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 생각한다”며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그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또, 민생토론회에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초청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어떤 구분을 두고서 만나고 있지 않다”며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 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해 즉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을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 된다”며 “지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바꾼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안들을 직접 챙기면서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39%로,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같았다.

갤럽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0%에 근접한 건 8개월 만이다. 부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1% 포인트(p) 오른 5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정 기자 pathfinder@

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 “정권교체 희망 드리겠다”

필승 결의대회... 총선 청사진 밝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시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0일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하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총선 청사진을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당초 불출마를 계획했으나, 당 안팎에서 호남 출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광주 광산을 출마를 결심했다.

이 공동대표는 연설에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저는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광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놀랍도록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같은 의견을 주셨다. 저는 광산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세력 재건을 주민들께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공동대표는 당을 이끄는 당 대표로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국민들

에게 선사하고 민주세력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나”라며 “방탄만 일삼는 방탄 전 문정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권교체를 하려면 새로운 대안세력이 필요하다. 저희 새

로운미래가 정권교체의 대안이 되겠다”면서 “저희만으로 부족하다면, 총선 이후에 대안세력을 새로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공동대표는 민주세력 재건에 대해 “저희 새로운미래가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민주세력 재건을 위한 진짜 민주당의 씨앗이 되겠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세력이 총선 이후까지, 지금처럼 갈 수 없다. 총선 이후에는 민주세력 재편이 시작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아시는 민주당은 이미 죽었다. 저희 새로운미래가 민주세력 재편의 토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이 광주 광산을 공천을 받은 상태다. 그래서 이번 광주 광산은 비이재명계의 상징 이낙연 공동대표와 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의 대결로 상징성이 도드라질 전망이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530명 지원

남성 331명, 여성 199명
40명 안팎 후보자 추천 예상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투표 기호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10 총선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총 530명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미래에 따르면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중 남성은 331명(62.5%), 여성 199명(37.5%) 등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을 평가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등록 기간인 오는 22일 전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비례대표 의석수가 46석임을 감안할 때, 40명 안팎의 후보자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이들은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은희 의원, 김형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인 전 위원장의 경우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영입인재 중에서는 ‘사격활제’ 진중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 ‘탈북 공학도’ 박종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는 비공개 요청자를 제외한 신청자 명단을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nnovation**



작품명 **Green Innovation**

모두가 꿈꾸는 넷제로 세상,
SK이노베이션이 만들어 갑니다

Hi

SK이노베이션의 **그린픽처**

‘적자전환’ 새마을금고중앙회, 건전성 고베진다

작년 당기순손실 규모 2501억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영향

“개별 금고 재무상황은 무관
경기상황 대비 내실 다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적자전환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600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과 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으로 흥역을 치른 바 있어 예금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다.

중앙회는 이번 적자와 개별 금고의 재무 상황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고객 예금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지역별 금고의 감독 기구여서 개별금고와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쇠신안 마련과 함께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2501억원이다. 전년 당기순이익(4668억원)을 감안하면 153.58% 감소했다. 지난해 건전성 문제가 한 차례도 마 위에 올랐던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을 높이면서 적자전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적자로 전환하면서 소비자 불안 확산 우려가 나온다. /김정산 기자

지역별 개별금고는 정기공시를 통해 재무상황을 따로 공개하고 있다. 중앙회가 건전성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만큼 차주의 예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 또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확보에 직접 나섰다. 이달 행정안전부는 부실 우려 금고 9곳을 합병했다. 서울 소재 금고는 1곳이며 부산·경북지역 금고가 2곳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금고의 예금은 모두 인근 우량 금고로 이전했다. 합병 과정에서 원금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중앙회에서 총회를 진행하고 선제적으

로 총당금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금융당국의 권고와 함께 올해 경기상황을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일선 금고 또한 중앙회의 결정을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적을 통해 몸집을 부풀리기보다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실을 다질 시기라는 것.

실제로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체급 줄이기’에 매진한 바 있다. 여·수신 비중을 모두 줄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254조

8919억원이다. 같은 해 1월(259조9706억원) 대비 5조원 넘게 감소했다.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던 7월에는 한 달 사이 수신잔액이 17조6065억원(6.78%) 이탈했지만 연말까지 매달 3~5조원씩 수신하며 회복에 전념했다. 같은 기간 여신잔액은 13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여신잔액은 188조1116억원이다. 같은 해 1월(201조120억원) 대비 6.85%(12조9004억원) 쪼그라들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리스크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출 기조를 보수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직접 들여다본다. 700억원 초과 투자 건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를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사하도록 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분위기가 나빠진 만큼 상표 가치에도 흠집이 났을 것”이라며 “올해는 건전성 제고와 쇠신에만 몰두해 외형확대는 중장기 기획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카드 News

하나카드

제품·서비스 브랜딩 iF 어워드 2024 ‘본상’

하나카드가 ‘제품 및 서비스 브랜딩’ 부문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 ‘초개문화’ 맞춤형 서비스

하나카드는 ‘원더카드(ONETHECARD)’가 ‘iF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에서 시작한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힌다.

원더카드는 지난해 1월 출시했다. 1장의 카드에 혜택을 집중해 소비생활에 최적화된 ‘초개문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출시 1년 만에 50만매 판매를 기록했다.

현대카드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역사·최신유행 홍보

현대카드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협업을 통해 디자인 행사를 진행한다.

◆ 무역장관 및 주요 인사 참석

현대카드는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2024’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탈리아 정부가 디자인의 역사 및 최신 유행을 홍보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한다.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한국 행사는 현대카드와 함께한다. 주제는 ‘디자인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이탈리아’다.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에는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 대사와 ‘페르디난도 구엘리(Ferdinando Guelli)’ 이탈리아 무역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자동납부·할부 고객 추첨통해 캐시백 제공

KB국민카드가 자동 납부 및 무이자 할부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비 절감 행사를 진행한다.

◆ 추첨 통해 캐시백

KB국민카드는 봄을 맞아 상품 결제 시 할인 및 상품권 증정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달 말까지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별도 응모 없이 초중고 학교 납입금 자동납부를 등록하고 KB페이로 50만원 이상 이용하면 자동으로 추첨한다.

이어 이달 말까지 ▲백화점·대형쇼핑센터 ▲항공사·여행사·면세점 ▲슈퍼마켓·대형마트 등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는 인기 행사 품목 구매 시 즉시 할인한다. ▲신선식품·가공식품·생활용품 ▲인기 가전(노트북·PC·주방가전) ▲가구·완구 등이다. /김정산 기자

“2금융권 5~7%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금융위, 18일부터 신청·29일 진행
5% 금리 초과한 금액에 한해 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신청은 18일부터이며 이자환급은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

용권에서 이자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5%이상 7%미만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다.

환급액은 5% 금리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이뤄진다.

예컨대 8000만원의 대출을 6% 금리로 1년간 납부한 경우, 5%를 초과한 1%포인트(p)의 금리에 한해 환급액(80만원)을 지급한다. 1인이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환급기준은 1년이다.

이미 지난 1월 원금을 모두 상환한 차주는 오는 29일부터 이자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원금상환이 1년 미만인 차주는 1년이 됐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5월 3년만기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한지 1년째가 되는 2024년 5월 이후에야 이자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용정보

원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콜센터, 우편, 이메일, 그외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개시 이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女 리더 육성 통해 그룹 경쟁력 강화”

2024 신한 쉬어로스 컨퍼런스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 육성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신한 쉬어로스(SHeroes)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신한 쉬어로스는 2018년부터 시작한 금융권 최초의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으로, 여성 리더 인재 저변을 넓히고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 과정을 수료한 쉬어로스 6기 멤버들은 ‘바른 리더(Right Now for Right SHeroes)’라는 주제로 지난해 동행 진행된 교육 성과와 여성 리더십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은 올해부터 타사의 여성 리더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 업계의 여성 리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성 리더, MZ세대와의 멘 토링 시스템을 추가해 여성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둘째 주 전국 13곳서 1만여 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서울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등 청약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 총 1만979가구(일반분양 838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센터텔페라스카이’, 경기 평택시 가재동 ‘지혜역반도체밸리해링턴플레이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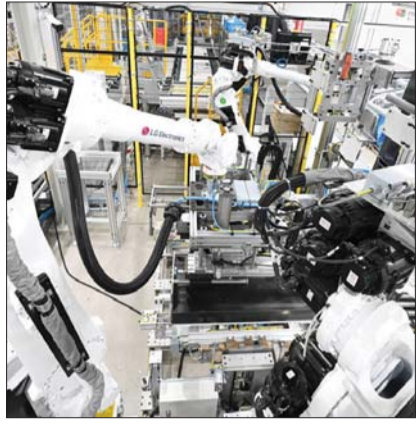
GS건설과 제일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을 분양한다. 아파트 5개 단지 2728가구, 오피스텔 2개 단지 542실 총 3270가구 규모다. 1·2단지는 지하 1층

~지상 최고 29층, 4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전용면적 84~208㎡ 아파트로 조성된다. 3·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전용면적 84~149㎡ 아파트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천신항대로, 송도 바이오대로를 통해 송도 전역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평택시 가재동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3블록 일원에 ‘지혜역반도체밸리해링턴플레이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전용면적 84~103㎡ 총 12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SRT·지하철 1호선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수원발 GTX가 개통 예정이며 GTX-A·C노선 연장이 확정돼 수도권 및 외곽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김태환 기자 kdh@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사업 본격화

구축 기술 등 무형자산 사업화
美 물류 전시회에 솔루션 전시
글로벌 파트너 기술협력 모색



LG전자 창원 스마트파크 자동화 공정.

LG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올 초 생산기술원 내에 '스마트팩토리사업담당'을 신설하고 스마트팩토리 구축 기술과 운영 솔루션 등 무형자산을 사업화했다. LG전자는 이러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물류 전시회 '모덱스(Modex) 2024'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생산 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자동화 생산 솔루션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생산 계획 및, 운영, 디지털 트윈 솔루션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고객이 공장을 기획하는 단계

부터 공장 설계-구축-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자동화·정보화·지능화 관점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지원한다. 또 공장 업그레이드 차원의 지속적인 개선 컨설팅도 제공한다.

LG전자는 B2B 분야의 한 축으로 올해 스마트팩토리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LG전자는 2030년 매출 100조원 기

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B2B 매출을 40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는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제조 노하우 ▲우수한 공법 및 장비 ▲통신 기술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생활가전부터 공조 설비, TV, 전장, 로봇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풍부한 제조 역량을 갖췄으며,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사전 품질 예측 시스템 등도 구축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5일 LS일렉트릭과 '스마트팩토리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및 상호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들과 스마트팩토리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D, '8.6세대 IT OLED' 설비 확충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구축하는 8.6세대 IT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 투자를 본격화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8일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8.6세대 IT OLED 라인을 구축하는 'A6라인 설비반입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왼쪽부터) 유환규 이루자 사장, 안태혁 원익IPS 사장, 오홍식 엘오티베콤 사장, 이도 히로유키 캐논도키 사장, 홍성천 파인애플 회장, 최준선 사장, 이청 부사장(중소형사업부장), 문성준 HBT 사장, 이송호 아이씨디 사장, 이병준 부사장(경영지원실장), 김경한 부사장(IT기술팀장)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그룹, 美·英서 전기차 경쟁력 입증

EV9 '2024 英 올해의 차'
아이오닉5 '美 최고의 가정용 차'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EV) 아이오닉5와 EV9이 미국과 영국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두 모델은 현대차·기아의 주력 모델인 만큼 지난해 판매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글로벌 순위가 7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

1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 EV9이 8일(현지시간) 유럽 친환경차 격전지인 영국에서 '2024 영국 올해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영국 올해의 차는 매년 ▲탑기어 ▲카 ▲오토카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단 30명이 12개월 이내 출시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심사와 투표를 진행해 선정한다.

EV9은 이번 어워드 1차 심사를 통해 대형 크로스오버 부문 최고의 차에 올랐다. 각 부문별 최고의 자동차는 ▲현대차 아이오닉5(패밀리카 부문) ▲르노 클리오(소형차 부문) ▲볼보 EX30(소형

크로스오버) ▲피스커 오션(중형 크로스오버 부문) ▲BMW i5(임원진을 위한 차 부문) ▲혼다 시빅 타입 R(고성능차 부문) 등으로 EV9은 이들을 제치고 최종적으로 영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영국 올해의 차 어워드 공동 회장 존 칼렌은 "이번 심사에서 심사위원 중 거의 절반이 EV9을 2024 영국 올해의 차로 선택했을만큼 매력과 신뢰감이 크다"며 "1회 중전 주행거리가 길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를 낮췄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는 미국에서 최고의 가정용 자동차로 선정됐다. 현대차 아이오닉5는 미국 월간지 페어런츠매거진이 주관하는 '페어런츠 2024 최고의 가족용 차 어워드'에서 '최고의 가족용 5인승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선정됐다.

페어런츠매거진 측은 "아이오닉5는 우수한 파워트레인(PE·구동모터, 감속기 등을 일체화한 모듈) 시스템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춰 가족용 차를 찾는 고객에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상반기 공채... 19개 계열사 참여

국내 4개 그룹사 중 유일 공채 유지

삼성이 올해에도 대규모 공채를 이어간다. 이재용 회장이 '인재제일' 철학을 바탕으로 일자리 확대 의지를 이어가는 덕분, 조직문화 쇄신 작업도 현재진행형이다.

삼성은 11일부터 올해 상반기 공채 일정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19개 계열사가 함께한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웰스토리 등이다.

삼성은 18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서 지원서를 접수 받고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 Global Samsung Aptitude Test(4월) ▲면접(5월)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계

발이나 디자인 등 일부 직군의 경우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와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를 병행한다.

삼성은 국내 4개 그룹사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를 도입해 '인재제일' 경영철학에 따라 능력 중심 인사를 구현해왔다. 1993년 국내 최초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 제도 신설과 1995년 학력을 조건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 철폐에도 앞장서왔다.

고(故) 이근희 회장 '인재경영' 철학과 이를 이어받은 이재용 회장 역할이 컸다. 이 회장은 2021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고백하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왔다. 인사제도 혁신과 산학 연계 과정을 운영하며 인재 확보에도 노력 중이다.

삼성은 그 밖에도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와 삼성드림클래스, C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용 기자

금호석화 "3년간 자사주 3779억 소각"

20일 자사주 87만 5000주 우선 소각
"행동주의펀드 무관... 주주환원 최선"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 절반을 3년에 걸쳐 소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 표 대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명 '조카의 난'으로 불리는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금호석화 지분 9.1%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올해 행동주의펀드 차파트너스와 손잡고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박 전 상무는 친척 관계인 박찬구 금호석화 명예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수년간 이어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262만4417주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소각할 예정이다. 금호석화가 보유 중인 자사주는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8.4%인 524만8834주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을 향후 3년간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소각하는 자사주는 지난 6월 종가 기준 3779억원 규모다. 금호석화는 오는 20일 자사주 87만5000주를 우선 소각할 예정이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화 사외이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금호석유화학

사로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추천하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2년간 전량 소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차파트너스 측은 금호석화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자기주식을 처분했다고 분석한다. 이에 금호석화는 그동안 차파트너스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책을 실시해 왔다고 즉각 반박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회사는 단 한 차례도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를 목적으로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상무는 배당 확대, 경영진·이사진 변경을 주주 제안했지만

주주들의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서 지난 경영권 분쟁과 차이가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어 차파트너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주주제안의 승자는 22일로 예정된 금호석화 정기 주주총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금호석화 지분 구성을 보면 박찬구 회장과 아들 박준경 사장, 딸 박주형 부사장 지분을 합쳐 15.7%에 달한다. 박 전 상무 측은 모친 김형일씨, 장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차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포함해 10.8% 수준이다. 박찬구 회장 측의 지분이 많지만 양측의 결핵 차이는 5%포인트 안팎에 그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석유화학 시장 침체에도 금호석유화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마린솔루션, 친환경 선박개조 시장 개척

넵튠사와 엔진 최적화 서비스 계약

HD현대마린솔루션이 '선박엔진 최적화 기술'로 친환경 선박 개조시장 신규 개척에 나선다.

10일 HD현대마린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 넵튠사와 자동차운반선 4척에 대한 '엔진 부분 부하 최적화(EPLO)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EPLO는 엔진 출력에 맞춰 터보차

저(과급기)를 교체 또는 개조하거나 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 연료-공기 혼합비 등을 조절해 연소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솔루션이다. 최대 킬로와트시(kWh)당 6g의 연비 개선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탄화 침전물 발생을 억제해 엔진 수명 연장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는 것이 HD현대마린솔루션의 설명이다.

앞서 HD현대마린솔루션은 엔진 터

보차저 분야 글로벌 리더 기업 액셀러론과 함께 '엔진 부분 부하 최적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해 10월 자동차운반선 1척을 첫 수주했고, 이번엔 4척을 추가 수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에 올랐다는 평가다.

HD현대마린솔루션 관계자는 "시장 니즈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솔루션으로 조선-해양 부문 탄소 감축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주가 반토막’... 주총 앞둔 네카오, 인적쇄신·신사업 ‘중점’

네이버, 올해 개장 첫날 18만원대 국내외 금융 전문가 사외이사 선임 카카오, 정신아 신임 대표 공식 선임 핵심 계열사 CEO 대거 교체 검토

NAVER **kakao**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는 3월 말 나란히 정기 주주총회(주총)를 연다. 두 회사 모두 이번 주총에서는 인적쇄신과 신사업에 중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뒷걸음치고 있다. 카카오는 각종 내용 사태로 핵심 계열사 수장들을 바꿔 경영 쇄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총은 각각 오는 26일과 28일에 열린다.

네이버는 성남시 분당구 제2사옥에서 열리는 제25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금융투자 전문가 두 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특히 네이버는 최대 실적을 경신했음에도 최근 주가 부양책에는 실패하며 주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의 주가는 올해 들어 15.97% 빠졌다. 올해 개장 첫날(1월 2일 기준) 22만원 대던 주가는 18만원 대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이는 네이버의 실적과 반대되는 행보다, 네이버는 지난해 첫 9조원대 매출을 올리며 최대 매출을 경신했지만 주가는 역주행하고 있는 것.

이에 네이버는 국내외 금융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주가 부양책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사 후보자는 변재상 전 미래에셋생명 대표와 이사무엘 인다우어스 공동창업자이다. 네이버 이사회는 두 후보자가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네이버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변재상 후보자는 2005년 5년 미래에셋증권 채권본부장을 시작으로 경영서비스부문 대표 등을 거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래에셋증권 대표를 역임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를 지

냈다. 이사무엘 인다우어스 창업자는 모건스탠리 자산운용에서 15년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 투자 대표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인다우어스는 아시아 최대의 개인 디지털 투자 플랫폼으로 약 50억달러(약 6조 7000억원) 규모의 고객 자금을 유치한 회사다.

이번 주총에서 두 명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면 네이버의 이사회는 총 7명 체제를 구성하게 된다. 사내이사 2명(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ESG정책대표), 기타비상무이사 1명(변대규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 4명 등이다.

두 후보자는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네이버는 미국 법인 웹툰엔터테인먼트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상장 주관사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선정했다.

네이버 이사회는 “두 후보자 모두 자산 운용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경영과 관련 사업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대표이사 역임 시절 신속한 의사결정과 혁신을 이룬 바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주총의 최대 화두는 정신아 신임 대표 공식 선임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카카오 대표로 내정한 데 이어 주총 시점에 맞춰 핵심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중 대거 교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내정된 정신아 카카오 신임 대표는 1975년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이베이 APAC HQ 전략매니저, NHN 수석부장을 거쳐 2014년 카카오벤처스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 카카오벤처스 대표, 2019년 카카오 기타비상무이사, 지난해 9월 CA협의체 사업부문 총괄을 맡았다.

현재 김범수 창업자와 함께 카카오 새 신 중추인 CA협의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정 신임 대표가 취임하면 조직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AI) 시장의 주도할 신사업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관련 논란과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논란, 문어발 확장 비판 등으로 각종 내용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카카오의 내부 조직 개편은 한층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그룹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핵심 계열사의 CEO 교체 작업을 연이어 단행했다. 이승호 카카오페이증권 대표도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혀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류금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연임도 불발될 전망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최고 수위 제재안이 담긴 사전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류금선 대표 해임 권고는 물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과징금 90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카카오 VX 문태식 대표와 카카오브레인 김일두 대표는 내달 임기가 만료되나, 연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직원 간담회에서 “새로운 배, 새로운 카카오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세우겠다”며 경영쇄신을 강조한 데 이어 정 대표 내정자도 공동체경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시간 속에 (쇄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에코프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 1.2조 투입

올 포항캠퍼스 중심 투자 단행

에코프로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전구체 및 수산화리튬 제조, 양극재 생산까지 이차 전지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에코프로는 올해 포항캠퍼스를 중심으로 국내에만 약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에코프로는 전구체 공장 증설에 69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외에도 양극재와 수산화리튬 공장 증설에 각각 3200억원, 1600억원, 산업용가스 생산에 1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올해 총 1조 1800억 원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에코프로이엠의 하이니켈 양극재(NCA) 생산공장 CAM8, 에코프

로이노베이션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 LHM2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CPM 및 RMP 3, 4 공장을 각각 건설한다. CPM은 전구체 공장이며 RMP는 전구체 공정 전단계인 황산화 공정이다. 니켈 코발트 망간 원료를 수입해 황산화 공정을 거쳐 전구체가 완성된다.

포항 4캠퍼스 구축이 완료되면 포항캠퍼스는 양극재 27만톤, 전구체 11만톤, 수산화리튬 2만6000톤을 생산하는 대규모 이차전지 산업단지로 발돋움한다.

에코프로가 지난 2020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포항캠퍼스는 총 4개 사이트로 구성돼 있는데 올해 투자금액을 포함해 포항캠퍼스에 투입되는 총 투자액은 5조 5000억원에 이른다.

/차현정 기자

LG엔솔, 첨단 BMS 솔루션 개발 추진

퀵검과 특정 기능 결합으로 고도화

LG에너지솔루션과 퀵검 테크놀러지가 첨단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진단 솔루션 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퀵검과 협력해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첨단 BMS 진단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BMS 진단 솔루션은 고객사 및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배터리 사용 환경을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 관계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BMS 진단 소프트웨어와 퀵검 스냅드래곤 디지털 새시(TM)의 특정 기능 결합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첨단 BMS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새로 개발될 BMS 진단 솔루션은 저 사양 하드웨어로 구동됐던 기존 BMS 소프트웨어와 달리 차량 내 고성능 스냅드래곤 디지털 새시 플랫폼의 SoC(System-on-Chip) 컴퓨팅 성능을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산능력을 80배 이상 향상시켜 더욱 정교한 배터리 알고리즘



LG에너지솔루션과 퀵검 테크놀러지가 첨단 BMS 진단 솔루션 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왼쪽부터) 정형성 LG에너지솔루션 사업개발 총괄 상무, 박지성 퀵검 CDMA 테크놀러지 코리아 마케팅 부문 부사장. /LG에너지솔루션

을 실시간으로 실행할 수 있고, 첨단 BMS 기능도 서버와 통신 없이 구현이 가능해진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실시간 배터리 상태 진단은 물론, 차량의 주행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솔루션 개발이 가능해져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U+,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서 3관왕

U+tv 넥스트·포동·스튜디오 X+U UI·서비스 디자인·커뮤니케이션 수상

LG유플러스는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한 사례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iF 디자인 어워드 2024’ 3개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독일의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다. 올해는 72개 국가에서 약 1만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디자인 차별성, 시각적 요소, 영향력 등 종합적 심사를 거쳐 총 3767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어워드에서 IP



이번에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U+tv Next’, ‘포동’, ‘STUDIO X+U’ 디자인. /LGU+

TV 서비스 ‘U+tv 넥스트’와 팻커뮤니티 ‘포동’, 콘텐츠 전문 스튜디오 ‘스튜디오 X+U’가 고객 중심의 디자인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각각 UI(사용자 환경) 부문, 서비스 디자인 부문, 커뮤니

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먼저 UI 부문에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본상을 수상한 U+tv 넥스트는 VOD, OTT, 실시간 콘텐츠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탐색하고 시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깔끔한 블랙 테마 디자인과 함께 시청 환경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한다. 메뉴에서 포커스를 옮길 때마다 다양한 효과를 적용, 콘텐츠 탐색 과정에서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서 ‘모바일 앱’으로 본상을 수상한 포동은 보호자와 반려견의 교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팻커뮤니티다. 현재 40만 반려인이 이용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편안한 실내환경에 럭셔리를 더하다”

KGM, 렉스턴 써밋 출시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서울모빌리티쇼서 공개한 렉스턴 리무진의 양산모델을 ‘렉스턴 Summit(써밋)’으로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렉스턴 써밋은 2열 2인승 최고급 독립시트부터 헤드레스트형 모니터까지 최상급 편의사양을 완비한 프리미엄 SUV로 ▲편안한 실내 환경 제공 ▲운·오프로드 주행 성능 확대 및 승차감 향상 ▲안전성 등을 강화했다고 회사측

은 설명했다.

렉스턴 써밋의 가장 큰 변화는 럭셔리한 독립시트다. 최상급의 2열 프리미엄 천연가죽 독립시트는 140도 리클라이닝 및 16.8cm 슬라이딩과 언더서포트 적용으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이동할 수 있으며, 2열 양면형 센터콘솔은 냉장고, 독서등 조명 및 동반석 1열시트 컨트롤러, 휴대폰 무선충전기 및 컵홀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주최: metro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삼성전자, HBM 경쟁 뒤쳐지자… 기관·외인 대규모 순매도

(고대역폭메모리)

올해 삼성전자 주가 6.62% 하락
증권가, 10만전자 기대감 아직 유효
SK하이닉스, 이달에만 10% 급등
글로벌 HBM 시장점유율, 약 50%

반도체주 훈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소외되면서 SK하이닉스와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 하방압력이 자극된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각각 1조 8681억원, 2조 1353억원씩 사들였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해 들어 6.62% 하락했다.

기관은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4조 1314억원 순매도하면서, 동일 기간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총합을 넘겼다. 더불어 SK하이닉스도 2번째로



/삼성전자

높은 금액을 순매도하면서 기관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순매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해당 기간 순매도 금액은 1조 537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삼성전자와는 반대로 꺾길을 걷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21.48%, 이달에만 10.05% 급등하면서 최근 신고가를 연속으로 갈아치우기

도 했다. 특히 외국인 비율은 54.35%에 도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외국인 매수세가 SK하이닉스에 몰린 것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외국인들은 이달에만 SK하이닉스를 벌써 약 5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이는 동일 기간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2위인 현대차(2286억원)의 2배를 뛰어넘는 규모이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반도체주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그 수혜가 옮겨지고 있다. 직전 거래일이었던 8일에도 전 장보다 4.24% 상승한 17만 19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동일 기간 외국인 순매도 상위 1위를 기록하면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올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이달에만 삼성전자를 3963억원 팔아치우면서 손절하고 있다. 반도체주의 훈풍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기관 투자자들과 더불어 외국인들까지 삼성전자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개인은 3월에도 삼성전자를 2254억원 사들이면서 높은 선호를 유지했다.

증권가에서는 AI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 선두에서 삼성전자가 다소 뒤쳐진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약 50% 수준으로 상당히 앞서 있음을 체감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랠리와 연관된 제품은 HBM”이라며 “이 부문에서만은 ‘세계 1위’ AI 반도체사 엔비디아와 더 끈끈한 관계를 맺고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앞서고 있다는 점이 주가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10만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감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진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평균 목표주가 역시 9만 4130원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달 미래에셋증권은 10만 5000원을 제시하면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예상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정책 모멘텀과 AI 랠리의 최대 피해자”라며 “단기간 내 반도체 업황의 추가 개선이나 파운드리, HBM 혁신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부진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국내증시, 물가지표 주목… “연준 통화정책 방향성 가늠”

코스피, 전주비 37.99포인트 상승
시장 전망치, 전월 상승률과 동일
오름폭 둔화 이전보다 경직성 떨 것

이번주 국내 증시는 3월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확인되는 물가지표 등에 주목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한 주 앞두고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를 통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2642.36) 대비 37.99포인트(1.43%) 상승한 2680.3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내 은행, 자동차, 상사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의 주가 상승세는 지속됐다. 저PBR 업종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에 실망한 매물이 출회되는 듯했지만 외국인을 비롯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한



코스피가 전 거래일(2647.62)보다 32.73포인트(1.24%) 오른 2680.35에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3.37)보다 9.81포인트(1.14%) 상승한 873.18,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0.9원)보다 11.1원 내린 1319.8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358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30억원과 399억원을 순매도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2600~2720선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2월 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등 변동성을 높이는 굵직한 경제 지표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월 CPI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2일

저녁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 전망치는 전년 대비 3.1% 상승으로 전월 상승률과 동일하다. 근원 CPI는 전월(3.9%)보다 낮아진 3.7%로 예상된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CPI와 PPI, 기대인플레이션 결과가 동계(12~2월)라는 계절성을 반영하면 오름폭 둔화가 이전보다 경직성을 떨 것”이라며 “2월 CPI의 경우 헤드라인은 전월 수준, 근원(에너지·식품류 제외)은 둔화

하는 결과가 발표된다면 6월로 후퇴했던 금리인하 기대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변동성 심화 시, 이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도체 업종의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국내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하지만 일각에선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미국의 대표적 성장주 펀드회사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지난 7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엔비디아의 거품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이 AI 관련 특정 종목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버블 우려가 나온다”며 “혁신기술의 실제 발전 속도보다 금융시장의 기대가 높아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자산운용

1년 은행 CD 금리 ETF

1개월간 금리형 수익률 1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1년은 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수펀드(ETF)’가 최근 1개월간 원화 기반 금리형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1년은 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상장일인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1개월간 수익률(NAV, 연환산 기준) 3.67%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국내 상장된 CD 91일물,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 등 원화 기반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는 국내 최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원관희 기자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 반도체 목표전환 펀드

1호·2호 모집액 1000억 돌파

키움투자자산운용은 ‘키움 글로벌 반도체 Smart Investor 목표전환 증권투자신탁 1호와 2호 모집금액이 1000억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펀드는 정해진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판매한 단위형 상품으로, 1호와 2호 각각 단 1주일만에 513억, 598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키움투자자산운용 측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의 급등세 속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

11년 만에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주가 ‘들썩’

metro 관심종목

파라다이스

내달 상장 예비심사 청구 예정
저변확대로 기관·외인 관심 제고

최근 파라다이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는 11년 만에 유가증권 시장 이전을 다시 들고나온 데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전 상장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주가 전망

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지난 7일 5.04% 상승한 1만 3550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전일 대비 2.51% 하락한 1만 32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파라다이스 주가가 널뛰기한 것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히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파라다이스는 오는 22일 정기주주총회 결의 후 4월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6월까지 상장 예비 심사

가 승인된다면 이르면 7월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업종에서 강원랜드 다음으로 영업이익이 큰 업체지만 코스닥에서 거래돼 왔다. 실제로 파라다이스의 지난해 매출은 9942억원으로 전년보다 69.2% 늘었고, 영업이익은 1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9.9% 증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파라다이스는 회사 규모가 커진 만큼 거래 및 수급이 원활한 코스피 시장 이전을 통해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동행이 가능한 대형 기관·연금·외국인 투자자의 관심도를 제고시킨다는 구상이다.

파라다이스의 코스피 이전 추진에 대해 증권가 전망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파라다이스는 최근 신용등급을 높이고, 기업 설명(IR) 부서를 재정비하며 본격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뒀다”며 “향후 자사주 매입, 배당 성향 확대,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됐다고 진단했다.

/원관희 기자

29년 역사... '매출부진'에 오는 8월 폐업

현대백 부산점, 리뉴얼 후 재개점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 매출감소 7월 말까지 영업, 2~3개월 리뉴얼



현대백화점 부산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부산점이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 7월말까지 영업한 뒤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올해 7월로 임대 매장들을 모두 정리하고 영업을 종료한다. 업계는 지속된 매출 부진을 이유로 꼽는다.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1995년 8월 개점 이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유통업계 가운데서는 현대백화점이 부산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세계 최대 백화점이라는 기네스 기록까지 세우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부산에 잇따라 개점하면서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이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실제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2012년부

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2012년 3000억원을 기록했으나 2013년 2900억원, 2014년 2571억원, 2015년 2241억원, 2016년 2115억원, 2017년 2057억원, 2018년 1920억원, 2019년 1707억원, 2020년 1498억원(57위), 2023년엔 1521억(61위)을 기록한 바 있다.

또 부산의 백화점 점포 중에서 영업 면적은 제일 작다.

이 같은 이유로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7월을 기준으로 영업을 정지한다. 부산의 첫 백화점이라는 상징성으로 2016년 전층을 리뉴얼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지만 가파르게 떨어지는 매출때

문이다. 입점 브랜드의 계약 기간도 7월 31일로, 계약연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 부산점의 폐점설은 2022년에도 나온 바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3200억원을 투자해 3만평에 달하는 유통판매시설 부지 4곳을 사들이면서 현대백화점 부산점의 존재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등 글로벌 3대 명품이 현대백화점 부산점에서 철수하면서 부산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다.

현대백화점 부산점은 폐점과 동시에 리뉴얼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부산점은 7월 말까지 영업한 뒤, 2~3개월간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재개점을 통해 기존 점포보다 점포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백화점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거나 상권을 고려한 신개념 형태로 변경하는 등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중진공, 中企 정책자금 1250억 지원

성장공유형 대출에 750억 투입 투자조건부 용자에 예산 500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에 따라 투융자 방식으로 125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투융자 지원예산은 '성장공유형 대출' 750억원과 '투자조건부 용자' 500억원으로 각각 이뤄졌다. 이 중 성장공유형 대출 750억원 내 '매칭투자' 지원규모는 250억원이다.

올해 중진공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투자 유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칭투자' 방식과 '투자조건부 용자'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투자 방식으로 기업당 20억원 한도로 운영하며 ▲직접투자 ▲매칭투자 방식으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중진공이 유망기업을 직

접 발굴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소재기업에 한정해 지원한다. 매칭투자는 민간 투자기관이 먼저 투자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 성장공유형 대출로 최대 1배수 이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신규 도입한 '투자조건부 용자' 방식은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용자(우대금리 0.3%p)를 지원해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받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다. 중진공이 용자 지원 시 용자총액의 5%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지원기업은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금의 20%를 상환하는 조건이다.

강석진 이사는 "중진공 투융자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해 데스밸리 구간의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청호나이스 케어마스터가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있다.

'레전드50+' 사업에 3년간 8400억 지원

중기부-17개 광역자치단체 맞손 6개 사업 참여할 1354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혁신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돕는다.

중기부는 10일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6개 지원사업에 대해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앞서 수도권권을 포함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기획한 21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참여기업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지난달 23일 1354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지원사업 통합공고는 '레전드 50+'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개 지원사업

에는 올해 2780억원을 포함해 3년간 약 84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레전드50+'참여기업에게는 다양한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혁신바우처 사업에 신청하면 현장평가 등의 '진단·평가'를 생략하고, 신청자격도 완화해 매출액 기준(3년 평균 120억원 이하 소기업)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책자금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장 높은 허들로 여겨졌던 정책우선도 평가를 면제받는다. 기업심사 단계에선 제출서류도 29개에서 15개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외에 창업중심대학, 스마트공장, 지역주력산업육성 등에서 서류평가를 생략해 '레전드50+' 참여기업들은 좀더 쉽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사업별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은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혁신바우처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스마트공장, 주력산업 기업지원용, 그리고 창업진흥원은 창업중심대학을 각각 담당한다.

프로젝트참여기업은 이들 주관기관을 통해서도 지원사업 내용 및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기부의 새로운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 50+'에 17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중소기업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준 것에 감사한다"며 "레전드50+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354개사가 3년 후 지역경제를 견인할 선도기업으로 탄실히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청호나이스, 7단계 매트리스 케어 선배

美 홈케어 브랜드 컬비사 장비 도입

청호나이스가 황사철을 맞아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를 선배 관심이다.

10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 명품 홈케어 브랜드 컬비사의 전문 장비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케어마스터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살균 공법

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으로 만들어 준다.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는 총 7단계인 ▲오염도 측정 ▲프레임 케어 및 워싱 ▲매트리스 사이드 케어 ▲매트리스 바디 케어 ▲진드기 기피제 코팅 ▲UV 스틱살균으로 진행한다. 청호나이스 매트리스 렌탈 구매 고객뿐 아니라 타사 매트리스 고객도 받아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전문 디자이너에 홈스타일링 받으세요"

한솔모두의봄, 디자이너 패키지 선배

온라인 토털 인테리어 플랫폼 '한솔모두의봄'을 운영하는 한솔모두의봄이 고객들에게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공하는 '한솔모두 X 디자이너 패키지'를 선보인다.

10일 한솔모두의봄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봄을 맞아 리모델링과 홈스타일링을 고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각자의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솔모두의봄 패키지 상품을 통해 고객들은 전문 디자이너에게 상담을 받고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실내 디자인, 각종 소품, 가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시공부터 AS(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인테리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패키지에서 협업할 디자이너는 오늘 의집, 인스타그램 등에서 홈스타일링으로 유명한 '다나홈(Dana Home)' 이 다른 디렉터와 우리나라 1세대 홈스타일리스트인 '리타홈(Lee.ta Home)' 이선영 실장 등이다.

한솔모두의봄은 본사 직영 시스템으로 운영하며 자체 유통부터 시공, 하자 보수까지 직접 서비스해 디자인 변경 후 다른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타사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시공이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교원투어 '발칸반도 3국 패키지' 출시

'올웨이 위드 티웨이 9일'

교원투어 여행자가 색다른 유럽을 느낄 수 있는 발칸반도 3국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10일 교원투어에 따르면 '올웨이 위드 티웨이 9일'은 색다른 매력을 지닌 발칸반도를 찾는 상품이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선호도가 높은 여행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예약과 동시에 출발이 100% 확

정되며 오는 5월 16일 첫 출발한다.

이 상품은 신규 취향한 티웨이항공의 인천~자그레브 노선을 이용한다. 버스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여유 있는 일정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 일정 4성급 호텔에 숙박하며 현지 특식으로 송어구이와 체밥 치치, 해물 스파게티 등을 제공한다.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는 자그레브 대성당과 성 마르크 성당, 반 엘라치치 광장 등을 관광한다. 여기에 도

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브로브니크에서는 고풍스러운 시가지와 돌리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발칸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윈시림으로 꼽히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서는 트레킹을 즐기면서 천혜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발칸반도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는 슬로베니아에서는 수도 류블랴나를 비롯해 알프스 빙하가 녹아 생성된 푸른 빛의 호수 블레드 호수,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포스토이나 동굴을 차례로 둘러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송미령 “물가안정 위해 자체할인 등 업체 적극적 동참 절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서울 대형마트 과일소매가 등 점검 주요 농축산물·가공식품 물가 살펴 할인지원 등 체감 가격 부담 낮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유통·식품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자체할인 행사 등을 통한 과일 등 농산물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치솟은 사과·배 등의 과일 값 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농협창동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농협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살펴본 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자체할인 행사, 가격 인하 노력 등 유통 및 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동행한 농협 및 마트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

되고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일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농식품분야 물가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물가안정 관련 농협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 단가 지원(204억 원), 할인 지원(230억 원) 등 체감 가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비정형과(못난 사과) 공급, 수입과일 도입 등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식품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 이슈를 청취·해결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할 계획이다.

농협 역시 정부 물가 정책에 부응해 하나로마트의 전국 판매망을 활용한 자체 특별판매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대금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적발

공정위, 비엔에이치에 17억 과징금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거나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각종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산업 설비·시공업체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비엔에이치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남 판교에 본사를 둔 비엔에이치는 1977년 4월 창립한 산업 분야 시스템 설계 시공업체로 2022년 매출액은 1200억원 수준이다.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는 △하도급서면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구매 강제 △부당한 위탁 취소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 8가지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8~2020.8)’,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12~2020.11)’,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4~2020.12)’를 위탁하면서 이같은 갑질을 벌였다.

우선 비엔에이치는 해당 사건 공사 착수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했으며,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관련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18억9500만원인데, 이보다 낮은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는 경쟁 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인 83억3900만원보다 낮은 80억 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수의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행위, 경쟁입찰 하도급계약에서 최저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5대강 지류 등 전국 하천 특별점검

환경부, 오늘부터 3주간 점검나서 제방·호안 유지관리·수문 작동 등 위험요소 발견시 4월 말까지 보수

환경부가 오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 점검에 나선다. 해빙기를 맞아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이번 점검에서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다고 10일 밝혔다.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는다. 또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 하천 수문 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하게 된다.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비롯해 △제방에 딸린 수문 및 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7월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 우곡제 현장 찾아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응급 보수 및 보강 등의 개선 조치를 완료해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에 조치가 어려운 구간이나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구간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연중 관리한다.

지정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홍수기 전·중·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구별로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홍수정보의 상호 제공,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누수사고 대비 공공폐수처리 운영 강화

환경부, 운영관리 지침 지자체 배포

환경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된 지침으로,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으로,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

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3월 15일까지 신고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근로복지공단은 10일 건설업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

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0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기한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트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직업능력 개발 공로 유공자 찾습니다”

고용부, 내달 11일까지 후보자 추천

고용노동부는 ‘2024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계획’을 11일 공고하고 내달 11일까지 포상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10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유공포상은 숙련기술로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노동자나 직업훈련 환경조성에 기여한 사업주 등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1997년 시작해 그간 2721명에 대해 포상했다.

올해는 △사업주 △노동자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HRD·자격업무종사자

등 6개 분야별로 총 95명에게 훈장(3명), 포상(5명), 대통령 표창(11명), 국무총리표창(21명), 장관 표창(55명)을 수여한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분야별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직업능력개발과),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지사), 한국폴리텍대학(인사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재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나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데뷔 30주년 기념

나윤선 Elles 콘서트

DATE: 2024.04.17 (WED) 19:30

VENUE: 롯데콘서트홀

TICKET: LOTTE CONCERT HALL **yes24**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60,000원
문의 070-8671-8103



Alive! **얼라이브! 맥스 바이탈**

나윤선 "Elles" 콘서트 관람 고객 모든 분들께
고급 액상 멀티비타민 얼라이브 맥스바이탈을 드립니다
[7개입 선물세트]



부산시, '젊고·활기찬 도시' 조성에 5년간 1.9兆 투입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일자리·주거 등 5대분야 구성
청년고용률 50% 달성 등목표

부산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조 90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는 10일 청년들이 부산에 머무르며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기회·안정·활력'을 키워드로 한 '제2차(2024년~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최근 청년 연령의 상향과 삶의 만족도 조사 1위 등 청년정책 여건이 전환 국면에 있다고 분석,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를 슬로건으로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의 5대 분야



부산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조 90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

로 구성됐으며, 5년간 59개 사업에 총 1조 90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2028년까지 청년고용률 50%까지 달성한다. 시는 청년과 기업의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위해 청년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창업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향후 6조원대 투자를 목표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미래 먹거리 중심의 기업 유치 및 금융특구 지정 등

오는 2028년까지 청년고용률을 50%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2028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만1100호 공급을 통하여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비용 경감-주거 피해 예방-내 집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 주거 안정화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청년임대주택(공공임대, 희망더함주택, 럭키하우스 등)을 총 1만1100호 공급하고, '부산형 청년 원가주택' 사업 등을 통

해 청년 맞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 지역 글로벌대학 1곳→5곳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에 강한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1만원 내고 11만원 공연 관람하는 '청년만원 문화 패스' 도입하여 시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용 자산 형성 사업인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올해에도 연 4000명 규모로 시행되고, 신용 회복 및 개인회생 지원 등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사업'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도 지속해서 실시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고, 이번 청년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산이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축제' 열려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이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문화관광축제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길이 2km, 폭 30-40m의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바닷길 체험과 진도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있다.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진도군이 주최하고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전남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개설 지원

전라남도는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 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 상설판매장은 케이(K)-푸드 열풍을 토대로 안정적인 수출 판매장 구축을 통해 전남 농수산물 수출을 세계로 확장하는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신규 개설할 해외 상설판매장은 총 10개소로,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남산 농수산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해외 대형유통매장 내 판매장 또는 단독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경북도 K리그 김천 홈 개막 경기 가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김천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K리그1 김천상무프로 축구단 홈 개막 경기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축했다.

이번 개막 경기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충섭 김천시장(구단주), 이명기 김천시의회의장, 김점두 경북체육회장, 최한동 김천시 체육회장, 김동열 국군체육부대장, 축구팬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K리그2(2부) 팀인 김천상무는 이날 지난 해 1부리그 우승팀인 울산HD FC와 경기를 가졌다.

/경북=장영우 기자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경상남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고, 체류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내 3개소의 거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최다규모인 3개소가 선정돼, 창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오는 10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 김해와 양산도 이달 중순 개소해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원을 시작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광주 옛 방직공장, '더현대'로 재탄생 목포시, 5개 시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대백화점그룹, 3.3만평 계약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점

광주 임동 옛 방직공장이 '친환경·최첨단기술·예술·엔터테인먼트·로컬'이 결합된 복합쇼핑몰로 재탄생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임동 방직공장터 개발에 나선 현대백화점그룹이 '더현대 광주'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복합쇼핑몰 부지 매매계약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한 부지는 3만3000㎡(1만평) 규모다. 더현대 광주는 친환경, 최첨단기술, 예술, 엔터테인먼트, 로컬 등 5가지 문화테마가 어우러진 문화복합쇼핑몰을 조성한다.

더현대 광주는 설계 절차를 진행한 뒤 올해 하반기 건축인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건축물을 착공, 2028년 초 개점할 계획이다.

건축물 설계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건축가 '헤르초크 앤드 드 뫼



광주 임동 문화복합쇼핑몰 '더 현대 광주' 투시도. /광주시청

룽'(Herzog & de Meuron)이 맡았다. 헤르초크 앤드 드 뫼룽의 대표작으로는 2006년 독일월드컵 개막전이 열린 아리아나츠아레나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등이 있다.

광주시는 임동 방직공장터 사업계획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안(도시관리계획 변경)을 18일까지 광주시와 북구, 임동주민센터에서 공개한 뒤 의견을 청취해 환경, 교통, 주거정책 심의 등 법적 행정절차와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전라권 최다 선정... 전통시장 활기

목포시가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5개 시장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해부터 명절기간과 전국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특별전 등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적극 참여했고, 전라남북도를 포함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원 시장 중 최다 선정되는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는 5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선정됨에 따라 시는 이번 달 30일과 31일 개최되는 유달산 봄축제와 5월 14일부터 열리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기간동안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경북도와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8-9일 필리핀 여행사 대상 경주,포항지역 팸투어를 가졌다. /경북도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주말특별전으로 운영된다.

주말특별전은 4개월 간 중앙식료시장과 종합수산물시장 3회,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청호시장이 각각 2회 운영된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필리핀 여행업계 대상 경주·포항 팸투어

경북도-경북문화관광공 진행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필리핀 관광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7-8일 1박 2일 동안 필리핀 주요 여행업계 8개사를 대상으로 경주, 포항지역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올해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트래블 투어 엑스포 2024(Travel Tour Expo 2024)'에서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 경북도, 경북도문화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공동기획 사업으로, 기존 강세였던 수도권 외의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추진했다.

필리핀 방한 상품 판매 최대 여행사인 락소여행사(Rakso Travel)를 포함한 주요 아웃바운드 8개 여행사는 이틀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야간관광, K-드라마 촬영지 등 경북만의 매력이 돋보이는 관광지를 방문했다.

아울러 일정 내 경북관광을 소개하고, 여행사의 의견을 주고받는 간담회를 가졌다.

여행사들은 "필리핀은 여전히 비자 문제가 있지만, 점차 입국 편의가 개선되며 방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가장 한국다운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경북지역의 매력을 느꼈으며 관광상품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대구국제섬유박람회, 대구엑스코서 개막

13일 시작... 국내외 322개 업체 참여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24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가 국내외 322개 업체(국내 203업체, 해외 119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엑스코에서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열띤 비즈니스의 장이 열린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대구국제섬유박람회는 국내 최대 섬유

소재 비즈니스 박람회로,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 수출 확대와 내수 거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다변화된 소비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적응성(ADAPTABILITY)'을 주제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섬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첨단 미래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첨단융합소재 개발, 탄소중립·친환경 기반 조성, 디지털·스마트화 전환'을 박람회의 전시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와사비 맛에 계란모양 케이크까지 ‘아이스크림의 진화’

워크숍 바이 배스킨라빈스

SPC 본사 1층에 R&D 실험공간 99석 규모, 혁신제품 선보이는 곳

AI 신제품개발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 아이템 발굴 등 시간 줄여

생와사비가 들어간 ‘와사비 맛아이스크림’과 독특한 디자인의 뿌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맛 볼 수 있는 곳. 지난달 서울 강남 도곡동에 문을 연 ‘워크숍 바이 배스킨라빈스(Workshop by Baskin Robbins, 이하 워크숍)’ 이야기다.

배스킨라빈스는 SPC 본사 사옥인 ‘SPC2023’ 1층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해 차세대 제품 연구개발(R&D) 역량을 선보이는 실험과 창조의 공간 ‘워크숍’을 열었다.

99석 규모로 마련된 이 공간은 그동안 배스킨라빈스 기술력의 정수가 담긴 직제조 제품들은 물론, 본사 기획자와 연구원들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곳이다.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 가맹점 확대 적용을 테스트하는 등 R&D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워크숍을 대표하는 제품은 뿌띠 아이



지난달 열린 ‘워크숍 바이 배스킨라빈스’ 매장 오픈 기념 행사에서 허희수 비알코리아 전략총괄 임원(오른쪽)이 제프리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왼쪽)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중앙)에게 매장과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PC

스크림 케이크 ‘에그’, ‘단지’, ‘날’, ‘베일’이다. 오픈 직후 독특한 디자인에 조화로운 플레이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워크숍에서만 판매하는 프리미엄 케이크는 매장에서 셰프가 직접 아이스크림부터 장식까지 제조하는 까다롭고 섬세한 공정 과정 때문에 매일 소량 생산된다. 오픈 첫 주에는 연일 매진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대용량인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들을 위한 미니사이즈의 뿌띠 케이크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

다. 매장에서 바로 즐기기도, 기념일에도, 선물용으로도 부담 없으며 인스타그램머블한 비주얼로 1인 가구와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다.

특히 워크숍의 시그니처 케이크 ‘에그’는 다양한 동물, 과일, 캐릭터 등으로 무한히 변신하는 모습과 알을 깨고 나와 미래로 도약하는 워크숍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유일무이한 동그란 에그 모양의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눈길을 끈다. 동화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앙증맞은 집

개발이 특징인 ‘레드 크랩 에그’, 귀여운 표정이 특징인 ‘씨니사이드업 에그’ 등 화려한 컬러의 제품이 인기다.

워크숍만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라인업은 상품기획실 케이크팀과 BRK LAB(R&D실) 케이크 개발팀이 협업한 성과다. 기존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아쉬웠던 점에 대한 고민과 최근 디저트 시장의 트렌드 연구를 통해 배스킨라빈스 기술력의 정수가 담긴 혁신적인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워크숍 매장은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의 기획에서 시작됐다. 비알코리아 전략총괄 임원을 겸하고 있는 허 부사장은 브랜드 혁신을 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1년 전부터 매장 구상에 돌입했으며, 차세대 연구기술을 도입해 워크숍을 운영하게 됐다.

워크숍이 기존 매장보다 특별한 것은 차세대 상품 개발 모델 ‘배스킨라빈스 AI NPD(신제품개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AINPD는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를 통해 신제품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생성형 AI’로 제품 비주얼까지 그려내 신제품 기획과정을 돕는다.

그동안 트렌드 분석, 신규 아이템 발굴, 콘셉트 설정 등 신제품 개발 초기

정에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 기반 AI를 접목해 신제품 ‘딥 플레이버’를 매달 선보이고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며 가맹점으로 판매 확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워크숍 매장은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스토리텔러 ‘닥터’를 운영한다. ‘닥터’는 소비자들에게 취향에 맞는 아이스크림 플레이버를 추천하고, 배스킨라빈스 브랜드 스토리를 일대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배스킨라빈스는 상반기 중닥터와 함께 하는 ‘아이스크림 도슨트’ 프로그램을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아이스크림에 대한 전문적이고 프라이빗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워크숍은 AI와 빅데이터 분석 등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신제품을 가장 먼저 선보여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배스킨라빈스의 미래를 제시하는 R&D센터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며 “워크숍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매개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11번가, 십일절 맞아 릴레이쿠폰 3종 제공

11일~15일 ‘3월 더파밍 월간 십일절’ 최대 500만 포인트 ‘십일포’ 이벤트

11번가가 ‘3월 월간 십일절’을 맞아 매일 진행되는 다양한 고객 참여 혜택을 준비했다.

11번가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간 진행되는 3월 월간 십일절 주제를 끊임 없이 제공하는 연속된 소핑혜택을 담아 ‘3월 더파밍 월간 십일절’로 정했다. ‘더파밍’은 ‘더하다(+)’는 의미와 성취와 보상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도파민’, 그리고 게임 등에서 아이템을 얻는 행위인 ‘파밍’ 단어를 조합했다.

11번가는 고객이 매일 월간 십일절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재미와 혜택을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더파밍 릴레이 쿠폰 3종’을 제공한다. 3000원, 5000원, 7000원 할인 쿠폰이 순차적으로 제공되는데, 먼저 받은 쿠폰을 사용하면 다음날 다음 단계의 쿠폰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돼 내려 받을 수 있다. 더파밍 카드 챌린지는 1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참여할 수 있다. 5회 모두 참여한 고객은 15일에 오픈되는 파이널 챌린지에 참여해 11페이지 포인트를 최대 1만1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1일 새롭게 선보일 ‘십일포’ 이벤트

/신원선 기자

는 매일 11번가 앱을 방문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번호들과 그 주의 로또 당첨번호가 일치하면 11페이지포인트 최대 50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행운의 이벤트다. 11번가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하루 최대 15장의 추가 ‘십일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월간 십일절은 대한민국 대표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와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월간 십일절 기간 중 11번가는 ‘여기어때 11%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여기어때는 11번가 15% 장바구니 할인쿠폰(최대 5000원)을 발급한다.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현대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 청평캠퍼스에서 진행된 ‘2024년 기업대학(원) 입학식’에서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첫째줄 가운데)와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그룹 기업대학, 디지털 인재 양성

커리큘럼 절반 DT관련 수업 전환

설립 30주년을 맞는 ‘현대백화점그룹 기업대학’이 디지털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그룹 기업대학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유통전문인재 양성을 넘어,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사내 교육기관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부터 기업대학 전체 커리큘럼의 절반을 디지털전환(DT) 관련 수업으로 전환한

다. 또한 비즈니스 전문 지식과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별 교수진과 디지털 기술 전문가를 초빙하는 한편, 디지털전환에 대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한 사례를 외부 대학과 협업해 체험하는 교육 과정도 확대했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실습과 데이터 활용 수업을 신설하고, IT를 적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교육 과정도 추가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롯데백, ‘레고 러빙 유’ 릴레이 팝업

‘화이트데이’ 키덜트족 겨냥

롯데백화점이 국내 키덜트 시장이 지속 성장함에 따라 ‘레고 러빙 유’ 릴레이 팝업을 전개한다. 롯데백화점은 다가오는 화이트데이를 맞이해 키덜트족을 겨냥한 ‘레고 러빙 유’ 릴레이 팝업을 동탄점(3월8일~24일), 김포공항점(3월29일~4월14일)에서 진행한다.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와 어덜트 및 기프트 상품 50종을 선보이며, 한정판 레고 시리즈까지 레고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만들기 콘텐츠를 준비했다. 이번 팝업에서는 방문하는 고객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롯데백화점과 함께 꽃꽂이 체험 콘텐츠를 준비했다. 레고 꽃 관련 제품을 포함해 4만원 이상 구매 시 ‘레고 미니 꽃다발 만들기’, 10만원 이상 구매 시 ‘레고 꽃꽂이 화병 만들기’ 체험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1인당 최대 3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시간대별로 5~7팀으로 한정해 진행한다.

전문 플로리스트와 함께하는 레고 꽃꽂이 클래스도 롯데문화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레고 꽃을 활용해 ‘플라워 기프트 박스’, ‘반짝이는 라탄 조형 화병 만들기’ 등 다양한 클래스를 동탄점, 김포공항점에서 진행한다. 접수는 팝업 기간 동안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플라워 기프트 박



롯데백화점 동탄점 1층에서 진행 중인 레고 러빙 유 팝업을 고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롯데쇼핑

스’ 수업은 레고 꽃과 생화를 함께 조합해 만드는 수업으로 9만원대의 수강료로 15만원 상당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팝업 매장 현장에서 진행한다.

연인과의 인생샷을 위한 5가지 테마의 쇼룸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 본점서 ‘블라섬아트페어’ 전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3월 한 달간 봄을 알리는 블라섬아트페어를 열고 도심 속 갤러리로 변신한다.

블라섬아트페어는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신세계갤러리가 직접 엄선한 작품을 매장 곳곳에 전시하는 특별한 이

벤트다.

신세계는 기존 본관 3층과 4층에서 진행하던 블라섬아트페어를 올해부터 5층으로 확대해서 선보인다. 더욱 많은 고객들이 백화점 곳곳에서 봄의 계절적 감성과 함께 예술 작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빛나 기자

“한국인 음주형태·습관 연구… 술자리 밖에서도 간 관리 필요”

인터뷰 | 이승용 동아제약 생활건강사업부 수석

‘모닝케어 간 솔루션’ 개발 주역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간 보호 ‘위 등 다양한 분야로 제품군 확장’

‘모닝케어’는 동아제약의 숙취해소 음료 브랜드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5년 모닝케어 브랜드를 출시한 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분 개선을 통해 숙취해소제 시장을 공략해 왔다.

그 결과, ▲깨끗한 숙취 모닝케어H ▲더부룩한 숙취 모닝케어D ▲푸석푸석한 숙취 모닝케어S 등 숙취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제품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모닝케어는 지난 2023년 기준 연간 매출 95억원으로 실적 반등에도 성공했다. 동아제약은 모닝케어가 코로나19 전후로 2019년 131억원, 2020년 85억원, 2021년 75억원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제약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간을 보호하는 건강기능식품 ‘모닝케어 간 솔루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모닝케어 간 솔루션’의 개발 주역인 동아제약 이승용 생활건강사업부 수석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모닝케어 간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모닝케어 간 솔루션은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을 비롯해, 습관처럼 음주하는 분들의 간 건강을 위한 제품이다. 모닝케어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의 음주 형태, 술자리 문화, 음주에 따른 건강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모닝케어 간 솔루션’ 개발에도 최근 변화한 음주 습관을 반영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외부 모임은 줄고 집에서 혼자 다양한 주종을 가볍게 즐기는 사람이 늘었다. 흡술을 하거나 잠들기 전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분들 또는 주량이 들쭉날쭉한 분들은 과음이나 폭음이 아니라는 이유로 알코올로 인해 위협받는 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은데, 간은 일상



이승용 동아제약 생활건강사업부 수석.

/동아제약

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장기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하루에 알코올 20g 즉 소주 2잔 이상 섭취하거나 주 2회 이상 술을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에는 신경세포가 없어 전체 간의 70~80%가 손상돼도 증상이 없고 질병 조기 발견도 어려워 만성 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모닝케어 간 솔루션’만의 차별점을 소개해달라.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유

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개별인정형 원료로 알코올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 개선 효과도 갖춘 복합 기능성 소재다. 다시마 특유의 냄새를 잡아낸 것도 제품 특징이다. 부원료로는 비타민B군, 밀크씨슬, 타우린, 아르기닌 4종 등을 담아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

–어떤 사람들에게 ‘모닝케어 간 솔루션’을 추천하나.

“애주가인 경우도 있고, 걱정과 스트

레스를 술 한 잔에 털어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 문제가 신경쓰이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간편하게 하루 한 포만으로도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또 간 보호 건강기능식품이므로 술자리 밖에서도 간 건강을 꾸준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모닝케어 브랜드만의 연구개발 원칙이 있다.

“R&D의 철학은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을 전한다’는 것이다. 모닝케어는 철저한 소비자 분석을 통해 제품을 출시해 왔다. 음주 형태 조사, 고객이 원하는 기능 파악, 기호도 집계 등 관련 누적 데이터만 해도 1만여 건에 이른다.”

–모닝케어의 제품군 확대 계획은.

“모닝케어는 제품 경계를 허물고 영역을 확장하며 고객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은 간, 위, 장, 콜레스테롤 등 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중이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LG생건, 日 시장 영향력 키운다… 전용제품 등 마케팅 강화

온·오프라인 소비자 접점 확대 CNP ‘더마앤서’ 신제품 출시

LG생활건강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가 일본 뷰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CNP는 온라인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오프라인에서는 일본 전용 제품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소비자들의 K뷰티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 접점을 다양하게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CNP는 일본 온라인 쇼핑몰 ‘큐텐’의 올해 첫 할인 행사인 ‘3월 메가와리’에서 일본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벚꽃 한정판 제품을 내놨다. 이번 한정판 기획에는 유튜브에서 97만7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일본 뷰티 인플루언서 요시다 아카리가 참여했다. 벚꽃이 만



CNP ‘프로폴리스’ 미스트에는 비타민(왼쪽부터), 에너지, 글로우 등 3종류가 있다.

/LG생활건강

개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화사한 제품 디자인으로 제품 소장 가치를 높였다.

아울러 CNP는 ‘CNP 인비저블 필링부스터 1+1’, ‘CNP 블랙헤드 클리어

키트’ 등도 마련했다. 특히 ‘인비저블 필링부스터’의 경우 부드러운 각질 관리 기능으로 일본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CNP 측의 설명이다.

CNP는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더마앤서’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더마앤서’ 텐션 앵글핏 앰플’은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름 개선 성분인 ‘레티놀’을 함유한다. CNP는 제품 특징과 개발 원리에 대해 일본 인플루언서와 홍보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CNP는 브랜드 대표 제품을 일본 시장에서 판매함과 동시에 일본 전용 제품으로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CNP는 이달 초부터 ‘프로폴리스’ 제품군을 일본 전용 신제품으로 선보이며 매장 입점을 확장하고 있다. 프로폴리스 ▲비타민 앰플 ▲글로우 앰플 ▲미스트 등을 일본 드러

그스토어 ‘아인즈&토크레’ 전 점포에서 판매 중이다.

또 CNP는 이달 중 일본 의약부외품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여드름 관리 제품 ‘AC-프로’를 출시할 예정이다. ‘AC-프로’는 일본 소비자의 피부 고민에 특화된 트러블용 제품이다. 버블폼 형태의 클렌징, 토너, 크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CNP는 글로벌 앰버서더인 ‘베이비몬스터’와 함께하는 콘텐츠도 활용한다. CNP는 국내외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베이비몬스터가 브랜드 인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NP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는 최근 첫 CNP 브랜드 앰버서더 활동으로 ‘프로폴리스 에너지 액티브 앰플’ 광고 촬영을 마쳤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소식



센텔리안24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다섯 번째 봄 한정판 제품. /동국제약

동국제약

‘마데카 앰플’ 5주년 한정판

15ml 앰플·나비모양 마스크 구성

동국제약이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가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탄생 5주년을 기념해 다섯 번째 봄 한정판 제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맥스 15ml’ 본품과 ‘마데카 화이트닝 포커스 나비 마스크’ 5매를 포함하고 있다. 앰플과 나비 모양의 마스크를 함께 사용해 눈가부터 볼 부위까지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구성이다.

특히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맥스는 동국제약의 핵심 성분인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과 독자 성분 글루타씨를 함유하고 있다. 기미와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의 복합적인 원인인 멜라닌 관리에 도움을 준다.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은 센텔리안24 대표 제품으로 지난 2019년에 출시된 후 올해 1월 기준 누적 판매량 1800만 병을 돌파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동국제약은 고객들의 꾸준한 호응에 힘입은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테라젠헬스-에스옴니, 건강관리 서비스 맞손

맞춤형 수면 서비스 상품화

롯데헬스케어의 자회사 테라젠헬스가 사업 파트너를 확대하며 유전자 분석의 대중화에 나선다.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전자 분석 기업 테라젠헬스는 지난 8일 에스옴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스옴니는 지난 2022년 유재성 대표가 설립한 기업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한다.

테라젠헬스와 에스옴니는 이번 업

무협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와 현재 구축한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해 맞춤형 수면 서비스를 상품화하기로 했다. 테라젠헬스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솜니아’에서 수면 해법 콘텐츠를 추천하는 ‘유전자 기반 수면 코칭’이 핵심이다.

나이가 양사는 수면 의학 전문 의료진과 함께 불면증이나 수면무호흡증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유전자와 수면의 상관 관계를 밝혀 수면 습관뿐만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 등 수면 관련 만성질환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비만 치료 삼중작용제’ 1상 돌입

(HM 15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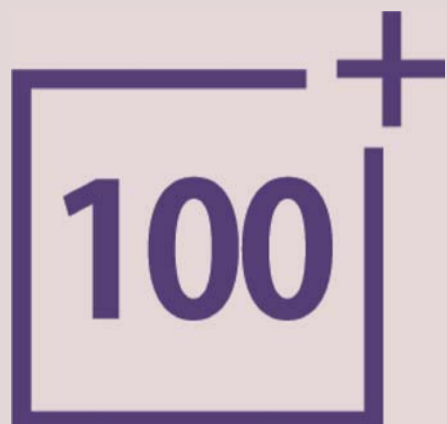
25% 이상 체중감량 효과 기대

근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25%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되는 한미약품의 차세대 비만 치료 삼중작용제(HM 15275)가 임상 1상에 진입한다.

한미약품은 지난 2월 29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 성인 건강인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HM15275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한국 식약처에 이어 3월 중 미국 FDA에도 IND를 제출할 계획이다.

HM15275는 한미의 전주기적 비만 치료 신약 프로젝트 ‘H.O.P’에 포함된 혁신신약 후보물질로, 현재 임상 3상 개발이 진행 중인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혁신을 이어갈 차세대 신약이다.

HM15275는 한미의 기존 바이오신약 플랫폼 ‘랩스커버리’가 아닌 ‘아실레이션’ 기술이 적용된 비만 신약으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와 위억제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해 비만 치료에 특화되며, 부수적으로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GS칼텍스,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협력

GS칼텍스는 지난 8일 서울 명동 나인트리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항만공사, 울산 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GS칼텍스 장혁수 제품부문장(왼쪽부터), 한국석유관리원 이경홍 사업이사, 해양수산부 윤현수 국장, 부산항만공사 이상권 부사장, 울산항만공사 정순오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S칼텍스



SK에코플랜트-테르메그룹, 기술교류 업무협약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일 서울 중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글로벌 리조트 기업 테르메그룹과 '인전 골든하버 부지 리조트 개발·시공 및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왼쪽 세번째), 로버트 하네아 테르메그룹 회장(네번째)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기보-케이뱅크, 비대면·디지털 기반 금융지원 MOU

기술보증기금이 케이뱅크와 '디지털·비대면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중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삼육대, 이민희 학생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삼육대학교 화학생명과학과 이민희(4학년) 학생이 '제21회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삼육대는 지난 19회, 20회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통령과학장학생을 배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육대 화학생명과학과 4학년 이민희 학생(왼쪽)과 김일목 총장이 대통령과학장학생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육대

부음

- ▲민경재씨 별세, 최완용 씨 부인상, 최원철·원재·수정·문정 씨 모친상, 김현재·손영택(국무총리비서실장)씨 장모상, 김동은 씨 시모상 = 10일, 대전시 충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정수원-대전추모공원. (042-280-8181)
- ▲이양순(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씨 별세, 이민숙씨 남편상, 이환석(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환성(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장)씨 부친상, 홍성욱·홍수진(약사)씨 시부상, 이상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윤호·이윤재씨 조부상 = 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02-2258-5940

피의자 참여권 보장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

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한편, 피해자나 증거는닉범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에게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즉,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때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다. 피의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 용활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들고 나온 휴대전화 2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2대 중 해당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 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위 다른 범행의 증거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들도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해당 피해자의 사건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피해자 및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별개인 전혀 다른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까지 임의제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위 별개의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다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범행은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바른

한일시멘트 우덕재단, 장학제도 개편... "소방관 등 의인가정 지원"

기존 장학금 '우·덕' 세분화 "공익사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한일시멘트 우덕재단이 순직 경찰, 소방관 등 의인 가정을 돕기 위해 기존 장학금 제도를 '우' 장학금과 '덕' 장학금으로 세분화하며 지원 대상을 넓혔다. 10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우(友)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의인 가정(순직 군인, 경

찰, 소방관 가족),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장애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다. 선정시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 장학금은 우덕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덕(德)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선발 후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대학원생은 1년간 장학금을 받는다.

우덕재단은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해 장학금 신청 페이지와 문의사항 게시판을 신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우덕재단은 매년 100여명의 장학생을 신규로 선발해 연간 300여명의 장학생에게 졸업 때까지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우덕재단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은 5659명에 달한다. 설립 이후 약 40년 간 157개 학교, 34개 연구기관, 39개 공익단체에 총 400억원을 지원해왔다.

우덕재단은 한일시멘트 창업주인 우덕 허재경 선대회장이 지난 1983년 당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참된 일꾼을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했다. 현재는 허정섭 명예회장이 이 사장을 맡고 있으며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지원하고 있다. 우덕재단 박승규 총장은 "40년 넘게 지속된 사회공헌 활동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노비즈협회, 임기근 조달청장 간담회 인증제 개편 등 현안 논의... "조달기업 정책 성공 뒷받침"

계약 처리기간 등 규제개선 건의도

이노비즈협회가 임기근 조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 조달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7일 경기판교 협회 회의실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초청 이노비즈기업인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범정부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조달 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기술혁신 이노비즈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노비즈협회에선 정광천 회장을 비롯해 보광아이엔티 차순자 대표, 엔티모아 장병권 대표, 스마트프라이 박기주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지난 7일 경기 판교 이노비즈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왼쪽 4번째부터)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임기근 조달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

조달청에선 임 청장을 비롯해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 등 5명이 자리를 했다. 간담회에선 ▲기술혁신 노력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편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R&D 확대 ▲기술혁신 기업 해외진출 협력 등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 현장규제 개선 건의

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광천 회장은 "혁신제품, 우수조달품목, G-PASS에 이르는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체계에서 이노비즈기업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노비즈기업은 공공조달 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혁신적 조달기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일사천리 사업' 추진

홈쇼핑이 올해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홍보를 위한 '2024년 일사천리(一社千里)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132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10일 홈쇼핑에 따르면 '일사천리'는 전국의 광역·도 지자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와 연계해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특산품을 발굴해 TV홈쇼핑 방송으로 판매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시작해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가며 그동안 1376개 이상의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TV홈쇼핑에 소개해 판로확대 효과를 누렸다. 무엇보다 영업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승호 기자

제9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 **green**
Festa Festa

www.veganfesta.com

서울비건 &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푸드테크 | 대체 소재&친환경 기술

2024.5.31(금)~6.2(일)
SETEC 전관

주최 서울특별시  (주) 베지노믹스페어 



최수연 네이버 대표께



김승호의
시선

최수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 대표님이 총괄하는 네이버와 스타트업 뉴리의 분쟁 사건에 대해 알고 있으신지요. 뉴리를 창업해 거대기업 네이버와 외로운 싸움을 하던 K대표는 올해 초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K대표는 위험한 상황까지 갔다가 하늘이 도와인지 다행히 생명을 건져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다소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후 일반병동으로 옮겨다가 기억상실 등 추가 증상 때문에 다시 폐쇄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시간을 보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일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해보입니다. 펜을 쥔 사람은 약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시에 네이버와의 다름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정도로 절박했던 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길 바랍니다. 최 대표님! 앞서 네이버는 뉴리가 출시한 '원플원'과 자사의 '원벨딜'은 다른 서비스 모델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원벨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뉴리의 원플원 서비스를 참고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뉴리의 K대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석에 출석,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님도 국감장의 무게감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위증 등을 해선 안된다는 것도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 탈취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영업비밀을 빼가고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기술을 가져갔다는 쪽과 아니라는 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을 약자가 져야하는 현실에서 피해기업이 다름에서 이기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도, 돈도 부족해 버티기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최 대표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클로바(CLOVA) X에게 네이버와 뉴리의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이버가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은 없는지 AI는 어떻게 생각할까도 궁금했습니다. 클로바 X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네이버가 뉴리의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없어도 관련 기술을 존중하고 뉴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네이버가 뉴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뉴리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고민하는 사이 K대표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면서 떨리시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다 잘될 겁니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길 빌고 응원합니다." 저도 울며 이 말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 대표님, 25년전엔 네이버도 스타트업이었습니다. /bada@metroseoul.co.kr

'K-방산' 경쟁력 실추해선 안돼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꼬리 자르기 VS 억지 주장' 세계 방산 시장 공략에 공들이고 있는 'K-방산'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력이 아닌 K-방산을 바라보는 세계 기업들의 신뢰와 이미지가. K-방산은 최근 2년 연속 세계 상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위상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이미 육군과 공군 분야에서는 신속한 공급능력과 뛰어난 가성비, 면밀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해양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 구축함 사업(KDDX)을 놓고 벼랑끝 싸움을 예고하면서 K-방산을 바라보는 시각

도 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선주를 유치하는 조선업에서 경쟁과 법적 분쟁은 자주 발생하지만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방위사업청이 KDDX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에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KDDX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 2012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기밀을 빼낸 사건에 대한 징계성 조치인데 임원의 개입이 없어 1.8점 벌점만 부과하고 5년 간 입찰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중징계는 피했다. KDDX의 입찰을 둘러싸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은 치열했다. 한화오션은 2012년 개념설계를 수주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한화오션의 기대와 달리 2020년 기본 설계 사업권은 HD현대중공업이 가져갔다. 문제는 2012년~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등에서 합점사

업 관련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공유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화오션이 제작한 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도 포함됐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23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채권단 채제에서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았고 당시 기술 인력들도 HD현대중공업으로 대거 이탈한 영향이 크다는 분위기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마련하면서 그동안 참았던 방산업계의 문제점을 들고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멈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았으면 한다.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방산비리 카스트를 깨고 가열되는 내전으로 K-방산의 경쟁력까지 약화되지 않도록 갈등을 봉합하길 기대해본다. /ysw@

오늘의 운세 3월 11일 (음 2월 2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48년생** 뜻밖의 초대로 마음은 즐거우나 지출도 생긴다. **60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72년생**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생각. **84년생** 가능성 없는 백일몽에서 벗어나자.
- 37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따르겠다. **49년생** 기다리던 문서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1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정의 화목이 우선이다. **73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85년생** 배우자와 다툼은 정신만 피곤.
- 38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50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뒤지 않는 법이다. **62년생** 변동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발전이 있다. **74년생** 멀리 바라봐야 넓게 보이는 법이다. **86년생** 어제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 39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은 독이 된다. **51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63년생**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일을 그르친다. **75년생** 온종일 기분 좋은 날. **87년생** 사찰에 가서 등다는 것도 무난.
- 40년생**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다. **52년생**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이다. **64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나 내 자식은 커 보인다. **76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저어야 한다. **88년생** 일한 보람을 찾는다.
- 41년생** 황소자리처럼 반듯한 생각이 차곡히 정리라 잘되는 날이다. **53년생**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면 실수가 없다. **65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있는 날. **77년생** 열매는 그저 열리지 않는다. **89년생** 아는 사람끼리 돈거래 할 수밖에.
- 42년생** 그물에 잡힌 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54년생** 귀인을 만나면 장기투자도 괜찮다. **66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 **78년생** 운이 호전되어 사랑과 금전이 따르는 하루이다. **90년생** 주고받는 것이 인생사이다.
- 43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물이 들어온다. **55년생** 일을 벌이면 더 더욱 힘들게 되니. **67년생** 한 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니 매사 주의를. **79년생**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1년생** 오후 재물이익을 얻는다.
- 44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쩌랴. **56년생** 구름 속에도 태양은 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68년생** 이상의 유혹이 있었으니 마음을 굳건히 하자. **80년생** 새사람보다 옛사람이 낫다. **92년생** 달은 차면 기운다는 말이.
- 45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기는 것이다. **57년생** 그냥 피는 꽃은 없으니. **69년생** 위장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81년생** 그칠 줄 아는 것은 어려운 일. **93년생** 시작과 결과는 같은 권역이라 볼 수도 있는데.
- 46년생**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이다. **58년생**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70년생** 계획을 세워야 나아갈 수 있으니 결과부터 챙기지 마라. **82년생** 눈치보다는 꾸준히 나가다 보면 승리한다. **94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 47년생**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바뀌니 영원한 것은 없다. **59년생** 숨겨왔던 숨겨진 마음 솔솔 털어낼 수 있는 날. **71년생** 신세진 이에게 은혜를 갚는 날이다. **83년생** 울적한 마음을 솔솔 털어내줘야 어찌랴. **95년생** 돈거래는 근심을 자초하는 시작.



김상회의四季 무재칠시(無財七施)

무재칠시(無財七施)는 재물이 아니라더라도 타인에게 또는 사찰이나 여러 사회기관에 베풀을 수 있음을 뜻하는 불가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불가의 가르침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누가 부자로 살거나 명예가 높다면 이는 반드시 전생의 지은 원인에 관한 결과로 보고 있다. 반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면 이 역시 전생에 지은 것을 이생에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어서 언제라도 내가 짓고 말하고 하는 행위와 생각들을 잘 알아차리며 행할 것을 강조한다. 석가모니가 계시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며 겪는 복락과 괴로움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때에도 어떤 이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 무슨 이유인지를 석가모니를 찾아가 물었다. 그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은 탓이라고 말씀한다. 그러자 그는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를 말씀했다.

첫째는 화안시(和顔施)이니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게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시(言施)로 사랑과 칭찬 격려의 말로서 베풀 수 있음을. 셋째는 심시(心施)이니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眼視)이니 호의를 담아 보는 것으로서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身施)로서 남의 짐을 들어 준다거나 하여 몸으로 일을 돕는 것. 여섯째는 좌시(座施)로서 앉을 자리나 누울 방을 양보하거나 편안한 거처를 마련해 줌이요, 일곱째는 찰시(察施)로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도와주는 것이니 "내가 이 일곱 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라고 했다. 위 얘기는 불교의 경전 '잡보장경'에서 재물이 아니어도 남을 도울 수 있음을 알려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열정과 열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1	9	3	6				
	6			4				
	2			8				3
	4							9
		7		1		6		
	8							5
2			6					4
				2				8
			8	7	5	2		1

	1	6		5		9		2
		4	2					6
5				9				
	8				2			
4								1
				6		5		
					2			9
8					3	7		
6	7	1		4	8			

1	8	2	9	4	8	7	6	9
9	8	6	1	2	7	5	4	8
5	7	4	8	6	9	8	1	2
7	9	8	6	9	4	2	8	1
8	2	9	7	1	5	4	8	6
4	6	1	2	8	8	9	7	5
8	9	7	8	5	1	6	2	4
6	1	5	4	7	2	8	9	8
2	4	8	9	8	6	1	5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外人 결제수수료 인하 등 고물가 속 '소상공인 살리기'

소상공인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 판로 확대·매출 증대 지원 등 추진
외인 결제 가맹점 수수료 2.7%p ↓

서울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외국인 결제 가맹점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올해 3차례에 걸쳐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수 경기 부진으로 생계 절벽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소상공인 판로 확대·매출 증대 지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서울품물시장 관광 명소화 등을 추진한다.

올해 시는 외국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상품권 발행, 푸드마켓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먼저 시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주



광화문광장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민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요 결제 어플과 '서울표준QR'을 연동한 간편결제 서비스 확장에 나선다. 기존 위챗·알리페이(중국) 등 10개 애플리케이션 외에 라인페이(대만), 창이페이(싱가포르)를 포함 5개 앱을 추가할 계획이다.

결제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외국

인관광객 결제 가맹점 수수료는 현행 4.2%에서 1.5%로, 외국인관광객 부담 평균 수수료는 종전 2.2%에서 0%로 각각 2.7%p, 2.2%p 낮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공항 입국장(수하물 인도장) 전광판에 노출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호텔 관광 센터에 배포하는 등 외래관광객과 소상공인을 대

상으로 외국인 모바일 간편(QR)결제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알린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지난 1월 설 명절에 1000억 원 규모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데 이어 오는 5·9·11월 3차례 더 상품권을 풀 예정이다. 금년 발행 규모는 총 8480억원이다.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 공원(종로구 세종대로 189)에서는 올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수~일요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광화문 푸드마켓' (2400㎡ 규모)을 열고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고품격 한식 푸드마켓으로 브랜드·네이밍을 개발하는 등 한식 먹거리를 상품화한다는 복안이다.

먹거리 상품 개발과 함께 야간 이벤트 개최를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계절·지역색·시장 특성 등 개성 있는 테마를 활용한 야간·먹거리 축제를 선보이고 야시

장 운영을 지원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근·현대 생활용품이 거래되는 서울 품물시장은 시민들에게 옛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도심 속 관광명소가 되살린다. 시는 올 2~12월 품물시장(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에 34억7700만원을 투입해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다. 간판과 판매대를 정비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 쇼핑 환경을 개선한다. '빈티지&엔틱'으로 브랜딩하고 유튜브,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인 아카데미(순님 응대, 마케팅, 리더십 등)를 개최한다.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품물시장의 운영·관리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영업시간, 가격 정찰제, 교환·환불, 점포 운영 등에 대한 영업 규정을 마련하고 점포관리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난임시술비,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서울시, 초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하면 누구나 가능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모두 없애고, 지원 횟수도 3회 늘린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시술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비 선택권을 보장해왔다고 시는 강조했다.

올해 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22회에서 25회로 총 3회 늘린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거주 요건도 손났다. 이번에 시가 서울 거주 6개월 조건을 삭제함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자들의 연속적·장기적 난임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44세 이하의 건강보험 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난임시술비 지원금마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1회 시술비 지원 상한액도 44세 이하 시술 종류에 따라 30~110만원인데 반해 45세 이상은 20~90만원이었다. 이에 시는 45세 이상 난임자 지원 비용을 상향 조정해 고령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술비 지원 희망자는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개발도상국 3개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

서울시, 지방자치 최초 진행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서울 ODA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정부나 다자개발은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ODA 사업과는 달리 시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도시문제 해결을 원하는 개발도상국 도시의 수요를 발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의 압축 성장 경험을 기반으로 개도국 도시가 겪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공모 대상은 개발도상국(OECD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기준) 지방정부들이며, 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는다. 총 3개 도시를 선정해 사업별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내용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지원 도시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수립 지원 ▲공무원 역량 강화 ▲정책 자문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추진 등을 서포팅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하남시, 美 아칸소주와 경제협력 체결

산업교류 확대 등 경제협력 약정

이현재 하남시장은 한국을 방문한 미국 아칸소주 경제사절단과 8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양 지역 산업교류 확대 등 경제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라허커비 샌더스 아칸소주 주지사는 전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을 지냈으며, 첫 여성이자 최연소 주지사로서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 부녀주지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이날 만남은 아칸소주에 있는 리틀록시의 자매도시인 하남시와 주 차원에서 경제·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칸소주 측의 선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8일 새벽 한국으로 입국한 후 첫 공식행사로 잡을 만큼 하남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하남시 IR 자료 시청, 양 기관 간 경제·비즈니스 확대 방안 논의, 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고, 양 기관

은 문화협력, 경제 및 비즈니스의 활발한 교류와 직원 상호 파견 근무 등 인적 교류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서로 공감했다.

또한, '하남시-아칸소주 간의 경제협력' 약정으로 양 지역 간 무역·투자, 농업 분야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참석한 샌더스 주지사는 "향후 한국을 재방문하면 하남시의 K-스타월드 부지, 쇼핑몰 등을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9 | 해질 / 18:36

3월 11일 (월)
음력 : 2월 2일

수도권 날씨
2 ~ 1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1/11
- 동두천 -1/11
- 가평 -1/11
- 파주 -1/11
- 서울 2/12
- 양평 0/11
- 인천 3/11
- 수원 3/11
- 용인 3/11
- 평택 0/12
- 백령도 4/8



▲말레이 티모르 섬 인근서 규모 5.0 지진 /사진 뉴시스
▲美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ネタ냐후 총리에 "손해 끼치고 있다" 비판

▲美, 다음달 일본과 정상회담서 무기 공동생산 전망
▲성차별 조항 개헌 시도한 아일랜드, 국민투표 부결로 실패



▲미국, 중국 창신메모리 등 반도체 제재 확대 방침
▲스페인, 가자지구 200톤 식량 등 지원 준비 끝 /사진 뉴시스



22대 총선 격전지
광진을
오신환vs고민정
04



Life

와사비 맛에
계란모양까지
아이스크림의 진화
니



“국가 위한 희생에 보상 필요... 보훈 알리는 ‘알리미’ 될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안종민 행정사

“새벽에 잠에서 잠에서 깬 때면 저같이 부상당한 유공자들도 이런 삶을 살고 있겠지 생각하며 아픈 무릎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

안종민 행정사는 매일 새벽을 통증으로 시작한다. 무려 27년 전에 다친 상처인데도 여전히 아프고, 겨울에는 심한 냉증과 함께 밤새 몇번이나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안 행정사는 다른 사람들 아픔에 더 관심이 많다. 틈만 나면 직접 만든 SNS와 ‘국가유공자닷컴’을 비롯해 다양한 커뮤니티를 살펴며 새로운 상이 사례를 찾아 나선다. 충분한 국가 보상이라도 받도록 해주고 싶어서다.

안 행정사는 스스로도 국가유공자이고, 국가유공자 지정을 돕는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나 소방 등 국가 기관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하고도 잘 모르고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일을 시작했다.

안종민 행정사는 1999년 학군단 37기로 임관한 군인 출신이다. 장갑차에서 떨어지고 훈련 중 산을 구르는 사고까지 당해 무릎을 심각하게 다쳤다. 결국 2007년 대위로 전역하고 늦은 나이에 처음 사회에 나오게 됐다.

첫 직장은 평범한 회사였다. 취업이 되지 않던 소개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며 어렵게 시작했다. 상이 군인은 연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5년 쯤 지났을까, 문득 국가 유공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한탄을 했다. 미리 정보만 있었어도 고통에 어려운 삶까지 감내할 필요는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것도 몰랐네라는 생각이 시작이었다. 상이연금도 받을 수 있었고 지원과 혜택을 끈질기게 요구했으면 좋은 곳에도 취업할 수 있었지만, 나는 정보가 너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국가 유공자 혜택과 법률, 규정 등을 다시 공부하고 국방부 상이연금도 다시 신청했다.”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시간을 할애해 공부하고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 이야기하며 토의하고 잘못된 보훈 정책들을 찾아다니느라 지쳤다. 그런데도 상이 연금을 2번이나 탈락했다. 국가 유공자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사례가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나중에 알게 된 연간 상이군인이 4만5000여명, 그중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안 행정사가 국가유공자들을 돕기 시작한 계기다. 상이를 입은 후배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았는데, 한결같이 군에서 다쳤는데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이야기였다. 대한민국 보훈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분노했고,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을 돕기로 했다.

이후 안 행정사는 운명처럼 보훈 전문 행정사가 됐다. 처음 주변 사람들부터 돕기 시작한게 2017년, 이듬해 회사에서 행정사 주요 분야 중 하나인 외국인 노동자 취업 업무를 맡게 됐고 결국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코로나19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완전히 행정사로 일을 하게 됐다. 2021년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부친 병간호를 하게 됐지만, 국회에서 보훈컨퍼런스 발표를 하거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의 ‘천안함 재조사’에 분노해 거리에서 60일 가랑 시위를 나가는 등 밤낮 없이 지냈다.

안 행정사가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다. 안 행정사는 우연히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만났다가, 여전히 PTSD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2019년 천안함 전우회 사무총장을 맡았고 여러 장병들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0년 3월 3일 고속정에서 수류탄 폭발로 두눈과 오른쪽 팔목을 잃은 김홍수 상사도 안 행정사가 지원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생존했지만 여전히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참전 용사 2명도 있다.

“2022년 제2연평해전 20주기를 기점으로 아직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참전용사가 2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의무복무자인 병사인 탓에 정보를 전혀 몰랐고 신청을 해도 탈락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직접 연락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도왔다.”



안종민 행정사가 소방관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



**부상으로 인한 군 전역 후 보상 못받아
지원정보 부족... 혜택 받기도 어려워
국가유공자 위한 보훈전문 행정사로
천안함·연평해전 등 유공자 인정 도와**

**보훈제도 변화에도 정보부족 여전히
군부대, 소방관 돌며 정보 알리고파**

안 행정사는 이런 노력으로 ‘국가보훈전문가’라는 별명도 얻게 됐지만, 여전히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재조명되면서 국가 보훈 제도에 대한 관심과 정책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군대에서는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안 행정사가 직접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장병들을 위해 ‘지식인’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상담 요청을 받고 있고, 유명 군인 출신 유튜버 ‘캡틴 김상호’에 출연해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보상’도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유공자보상닷컴을 직접 운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받고 상담해준다.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어려서부터 직업군인을 꿈꿨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어쩔 수 없이 전역을 선택하던 때라고 회상하는 안 행정사다. 심지어는 가장 보람있었던 경험으로도 처음 군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했을 때를 가장 먼저 꼽는다. 그런 국가에 스스로 상처를 입었고, 또 상처 받은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일이 쉬울리가 없다.

그럼에도 안 행정사는 마음을 굳게 먹는다. 제복을 입고 헌신하는 분들의 열악한 처우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고, 국회에서도 좀처럼 관련 법안을 통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정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다.

“일을 하면 할 수록 국방부와 보훈부, 입법기관 모두 국민 기대치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국민들 모두가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고 있지만, ‘1계급 특진과 훈장 수여’ 같은 말뿐인 조치만 보고 국가유공자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현실은 이만큼 진급이고, 연금은 사망전 계급으로 지급하는 등 아무런 보상이 없는 셈인데 말이다. 실무자는 전사와 순직을 ‘끝난 문제’로 인식하고 외면한다.”

보람도 크다. 안 행정사는 오랜 꿈인 군인이 됐을 때만큼 국가유공자 공익 활동을 시작한 당시를 좋은 기억으로 떠올렸다. 2018년故 유호철 대위, 2020년 천안함 참전용사, 2022년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가 됐을 때를 행복했던 순간으로 회상했다.

그래서 안 행정사는 보훈 신청을 망설이는 상이 군인들을 위해 힘을 낸다. 젊은 나이에 국가 부름으로 헌신하다 부상을 당했는데도 장애인으로 숨어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찾아 보상과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비판도 망설이지 않았다.

“고통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줘야 한다. 부상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예우를 하지 않으면 부상당한 본인과 가족까지도 국가를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한다.”

안 행정사 꿈은 오히려 소박했다. ‘대한민국 보훈전문가 안종민 행정사’라는 타이틀. ‘보훈알리미센터’라는 첫 SNS 간판처럼 보훈 알리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국가유공자보상닷컴’을 더 많이 알리고 시스템을 갖춰 편하고 정확하게 보훈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다. 정책과 법률을 직접 관리하는 자리도 욕심을 냈다.

“최근 전국 소방안전공무원 노조 요청으로 강의를 했는데, 많은 질문을 받으며 현장에서는 보훈과 보상을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알리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시간이 허락하면 전국 팔도 군부대와 소방관서를 돌며 강연을 하고 싶다. 또 미래에는 희생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경북서 ‘2024성주참외전국마라톤대회’ 성료...6457명 참가
▲스노보드 월드컵서 ‘배추보이’ 이상호 최종전 우승 /사진 뉴시스

▲전국노래자랑에 ‘30년 가수’ 윤도현도 게스트로...로커 출연 이레적
▲테니스 논타부리 국제주니어 대회서 유망주 김장준·정연수 우승



▲배드민턴 안세영, 프랑스 오픈 단식서 라이벌 꺾고 극적 결승 진출 /사진 뉴시스
▲영화 파묘, 개봉 17일만 관객 750만 돌파...1000만 기대도 커져